

정부에 신뢰 잃은 피해자들 “구제책은 당침지위 유지 뿐”

사전청약 후폭풍

③ 희망고문

청약난민 양산한 정부 정책
공공청약 지연만 피해 지원
민간 특별공급 구제는 미비

사전청약제를 놓고 일각에서는 ‘정부판 지주택(지역주택조합)’이라 부른다. 주택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집했다가 사업이 정제, 지연되는 것은 물론 조합파산 등으로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지주택이나 사전청약이 다를 바가 없다는 조롱이다.

사전청약이라는 어설픈 정책이 모두들 ‘패자’로 만들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2~3년을 기

다린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다시 ‘청약난민’ 신세가 됐다.

공급 확대 속도전을 펼치겠다더니 정부는 본청약 지연과 취소로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시행사 역시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에 묶여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수백억원에 달하는 계약금은 그대로 날려버렸다.

정부가 뒤늦게 사전청약을 중단하고 대책을 내놔지만 피해자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 피해커진 민간 사전청약

본청약만을 기다리던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사업 취소나 분양가 상승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지금의 청약 시스템에서 2~3

년이란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기회다. 혼인 기간이 지나거나 소득이 높아지면서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 없어지기도 했고, 당초 요구된 거주기간을 채우고타지로 이사를 간 경우 다른 청약 기회도 잡을 수도 없다. 기약없이 이뤄지는 일정에 전월세 계획도 짜기 힘들다.

특히 민간 사전청약당첨자의 피해는 더 크다. 공공분양의 경우 당첨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본청약에 지원할 수 있었지만 민간 사전청약은 지원 자체를 할 수 없었다. 입주 지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정책도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들만 해당한다.

한 피해자는 대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통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민간 사전청약 취소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민간 시행사와 개인 간의 계약문제로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사업 취소로 LH는 토지 계약금 이득을 보고 공공택지를 회수했지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전청약 당첨자는 당첨 지위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뒤늦게 구제책을 마련하고 나섰지만 피해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관련 규정을 바꿔 민간 사전



8일부터 中 무비자 입국 가능

중국이 오는 8일부터 내년 말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

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3일 오전 서울시내 한 중국여행사.

/뉴시스

청약 당첨자의 중복 청약을 허용하고, 사업 취소로 피해를 본 이들의 청약통장 가입 이력과 납입 횟수 등은 복구해주시기로 했다. 그러나 특별공급 등 자격 자체를 상실한 경우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 “구제책은 당첨자 지위 유지 뿐”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사전청약 취소 단계에 대해선 당첨자 지위 승계를, 분

양가 상승 단지의 경우 인상을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파주운정3 사전청약 취소 당첨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 이르면 연내 ‘초고령사회’ 진입

5년 새 노인비중 4.4%p 늘어 늦어도 내년 1월 20%선 도달

대한민국이 올해 안에 또는 내년 1월 중 초고령사회 문턱을 넘는다. 노인 인구 비중이 20% 선에 도달하는 것이다. 유엔(UN)이 규정한 초고령사회 진입까지 불과 0.18%포인트(p)밖에 남지 않았다.

3일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총인구(5123만 명)에서 65세이상(1015만 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인 19.82%에 달했다. 노인 비중 14% 이상~20% 미만의 고령사회도 곧 막을 내리고 앞에 ‘초’(超)를 달게 된다.

이들 인구 비중은 1년 전인

2023년 10월 말(18.79%)과 비교해 1%p 넘게 커졌다. 올해 들어서는 1월 19.1%로 시작해 9월에는 19.7% 수준까지 왔다. 이어 한 달 만인 10월에 0.1%p가량 더 늘어났다.

오는 11월 19.9% 안팎에 이르고 12월에 20.0%에 근접하거나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는 20%를 웃돌 전망이다.

우리나라 고령화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에 더해, 기대수명·평균수명이 세계 최상위권(남자는 상위) 수준까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행안부의 연령대별 인구 추이는 심각성을 고스란히 드러낸

다. 지난 2019년 10월 기준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649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비중이 12.5%였다. 2024년 10월 이들은 549만 명으로, 5년 만에 100만 명 감소했고 비중은 10.7%까지 내려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유소년 비율에서 지난해 말 일본을 제치고 비공식 세계 최소에 자리했다.

같은 기간 65세이상 노인 인구(비중)은 796만 명(15.4%)에서 1015만 명(19.8%)으로 200만 명 넘게 증가했다. 유소년과 고령층 중간에 낀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각각 3739만 명(72.1%)에서 3558만 명(69.5%)으로 크게 줄었다.

유엔인구청에 따르면 전 세계

초고령사회는 20여개국이다. 일본을 제외하면 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 등 모두 유럽 국가다. 미국도 아직 초고령사회가 아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대만이 일본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요점 연구위원은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인구-노동 관련 한 토론회에서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남성 50세 이후 조기 퇴직 및 여성 30대 후반 이후 경력단절 등이 주요국에 비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메트로경제 ‘2024 뉴테크노로지포럼’

범용인공지능 시대, 공존법 모색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오는 11월 20일(수) 오후 “2024 뉴테크노로지포럼”을 개최합니다.

인공지능(AI)이 가속화하면서 인간을 뛰어넘는 범용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과 공존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AI를 필두로 확장현실(XR),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 혁명을 이루는 기술들이 융합되며 초연결사회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거주환경과 노동주체는 물론 전반적인 사회구조가 변화하며 미래 생태계가 재편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은 “초현실사회로: AGI가 재편하는 미래 생태계”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AGI 시대의 공존법을 모색하고 산업과 기업에 일깨워줄 변화상을 공유합니다.

- ◆ 주 제: 초현실사회로: AGI가 재편하는 미래 생태계
- ◆ 일 시: 2024년 11월 20일 오후 2시~5시
- ◆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 등 록: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www.metroseoul.co.kr)
- ◆ 문 의: 2024 뉴테크노로지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 기조강연: 유성준 세종대학교 인공지능융합연구원장 (컴퓨터공학과 교수)
- ◆ 강 연: 김현배 딥파인 대표
이근우 화우 법무법인 A센터장(변호사)

metro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尹 지지율 10%대로 ‘뚝’… 갤럽 19%,
문화·엠베레인 17% /사진 뉴시스
▲국회 677조 예산전쟁 돌입… “정부 원
안 사수vs대폭 칼질”

▲국회 연금개혁, 2개월 동안 논의 없어
… 연내 통과 사실상 무산
▲여가부장관 8개월째 공석… 임명 건의
없어



▲한미일, 미 전략폭격기 B-1B 참여 공
중훈련… 북 ICBM 발사 대응 /사진 뉴시스
▲북, 새 대남기구 ‘대적연구원’… 윤 대
통령 원색 비난 “재앙”



가을색 입은 경복궁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올라 포근한 날씨를 보인 3일 나들이 나온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의 가을풍경을 즐기며 산책하고 있다. /뉴스시

해리스, 경합주 7곳 중 4곳 우위

美 대통령 선거 D-1

해리스vs 트럼프 초접전 양상

미국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두고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합주 7곳 중 4곳에서 해리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의 당선 전망도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로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긍정적 요인이,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부정적 요인이 더 많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3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와 여론조사 전문업체 유거브가 실시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경합주 7곳 중 4곳에서 해리스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합주 7곳은 네바다·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노스캐롤라이나·미시간·조지아·애리조나 등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달 25~31일 18세 이상 미국 등록 유권자 6600명 대상,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중 '파란 장벽(블루 월)'으로 분류되는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 3개 주와 네바다에서 해리스 후보 지지율이 높았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에서 1%포인트 가량 우위를 보였다. 애리조나는 두 후보 중 한 명을 선택하지 못하고 동률을 이뤘다. 경합주는 선거인단을 최소 6명(네바다)부터 최대 19명(펜실베이니아)까지 부여받는다.

〈4면에 계속〉

/원승일 기자 won@

피해자들 국토부·LH 대상 헌법소원 추진

》1면 '정부에 신뢰없음...'서 계속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문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은 오로지 당첨자 지위 유지 및 승계 뿐"이라며 "국토교통부 및 행정기관은 사전청약 '지위승계'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 및 방법과 절차 등을 조속히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피해자들은 취소된 사업지의 사업 재개 시 사전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고 승계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공공청약 프로세스에 들어와서 청약약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에서 신뢰 보호의 차원에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실제 당첨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 달라는 요구는 알고 있지만 시행사나 시공사에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HUG나 지자체, 국토부 승인을 받아 봐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은 국토부와 LH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추진한다. 법적 근거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746호) ▲주택법 제35조(사전청약에 따른 주택 공급) ▲행정법상 신의성실 원칙 및 신뢰 보호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 등을 제시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완성차업계, 국내외 판매 가속도 하반기 '코세페'로 분위기 달군다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내수 촉진
코세페 효과로 판매량 상승 기대
현대차 24개 차종 1.9만대 할인
기아 타이거즈 우승 '세일페스타'

국내 완성차 업계가 국내외 시장에서 판매량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 한국GM,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등 국내 완성차 5개사는 신차와 친환경차 등을 앞세워 판매량 확대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판매량 상승세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완성차 5개사의 지난달 판매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73만3260대로 집계됐다. 판매량에는 반조립제품(CKD)이 포함됐다. 5개사의 글로벌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은 4월 이후 6개월만이다.

완성차 업계 만능인 현대차는 국내에서 0.9% 증가한 6만4912대, 해외에서는 2.1% 감소한 30만6509대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국내의 합산 판매량은 1.6% 줄어든 37만1421대로 현대차는 5사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기아는 특수차량을 포함해 국내에서 4만6410대, 해외에서 21만8444대를 각각 팔았다. 판매량이 국내에서는 7.3%, 해외에서는 1.9% 늘었다. 기아 합산 판매량은 2.8% 증가한 26만4854대였다.

한국GM은 국내에서 55.8% 급감한 1974대를 파는 데 그쳤지만 해외에서는 8.2% 늘어난 7만3310대를 판매했



현대차 2024년형 팔리세이드/현대차

다. 수출 호조에 총판매량도 4.2% 증가한 7만5284대를 기록했다.

KG모빌리티는 국내외 합산 9245대를 팔았다. 이는 작년 10월 대비 44% 증가한 것이다. 내수는 18.4% 증가한 4504대를 판매했고, 해외는 81.2% 늘어난 4741대를 팔았다.

르노코리아는 최근 출시한 중형 SUV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의 신차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지난달 국내에서 340.7% 급증한 6395대를 팔았다. 해외에서도 41.2% 늘어난 6061대를 판매했다. 글로벌 판매량도 116.8% 뛴 1만2456대를 기록했다.

이같은 상승세는 이번달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완성차 5개사가 연말 내수 진작과 전국적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차종과 품종,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현대차는 할인 차종을 24종으로 확대하고 할인율도 크게 높였다. 현대차는 24개 차종 1만9000여대를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차종별로 쏘나타·그랜저·싼타페

최대 200만원(하이브리드 포함), 팔리세이드 최대 500만원, 아이오닉5·아이오닉6 최대 500만원, 파비스 최대 1000만원, 제네시스 브랜드 차종 최대 7% 등이다.

기아는 기아 타이거즈의 12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기념해 '기아 세일페스타'를 실시한다. 차종별 최대 할인율은 더 뉴 K5 7%, 더 2024 K8 하이브리드 7%, 더 2024 K9 3%, 더 2024 니로 하이브리드 3%, 더 2024 니로 EV 9%, 더 뉴 EV6 7%, 봉고 III LPG 터보 10%, 봉고 III EV 12%다. 8개 차종을 합쳐 총 5000대 한정으로 선착순 혜택이 제공되며 차종별 한정 수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한국GM은 주력차종인 트랙스 크로스오버 또는 트레일블레이저를 구입할 경우 현금 70만원, 상품권 10만원 등 최대 80만원 혜택을 제공한다. 르노코리아는 QM6에 최대 340만원, SM6에 최대 25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KG모빌리티는 렉스턴 써밋에 500만 원을 지원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취업난에 AI·반도체·경영학과로 '우르르'

서울 주요대 10곳, 작년 정시 분석
자연계 AI, 반도체, 컴퓨터학과 선호
인문계는 경영, 경제, 미디어학과 順

지난해 정시모집 합격 점수 최상위 학과는 자연계에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학과, 인문계는 경영학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2024학년도 서울 주요 대학 10곳의 정시 신입생 점수 기준, 대학 내 최상위 3위권 이내 진입 학과를 분석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서울시립대 등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국수탐 백분위 평균 최종등록자 상위 70%를 기준으로 한다. 단, 자연계에서 의학계열은 제외했다.

분석 결과, 자연계열은 AI, 반도체 학과, 인문계는 경영학과와 신입생 합격점수가 가장 높았다.

인문계를 살펴보면, 10개 대학에서 각각 합격 점수 상위 3위권 내 학과에 진입한 31개 학과 분석 결과 경영학과가 6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제,

미디어, 통계, 행정학과가 각 3개 학과로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동일방식으로 2021학년도에는 경영학과, 경제학과가 각 5개, 2022학년도에는 경영, 경제, 행정이 각 4개 학과, 2023학년도에는 정치, 외교가 6개 학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 인문계에서 어문계열 학과는 2024학년도 주요 10개 대학 합격 점수 상위 3개 학과에 진입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어문계열 학과는 2021학년도 3개 학과, 2022학년도 1개 학과, 2023학년도 1개 학과가 포함됐다.

자연계열에서는 상위 3개 학과에 진입한 39개 학과를 분석한 결과, AI 5개 학과, 반도체 5개 학과로 합격 점수 상위권 학과에 가장 많이 분포됐다. 다음으로 컴퓨터 관련학과가 4개 학과였고, 전자전기, 화학, 화학공학 학과가 각 3개 씩 차지했다.

자연계에서는 AI 관련 학과가 2021학년도 1개 학과가 포함된 이후, ▲2022학년도 2개 학과 ▲2023학년도 4개 학과 ▲2024학년도 5개 학과로 상위

권 학생들의 입학이 늘고 있다.

반도체학과도 ▲2021학년도 2개 학과 ▲2022학년도 2개 학과 ▲2023학년도 5개 학과 ▲2024학년도 5개 학과로 상승 중이다.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취업에 유리한 학과로 상위권 학생들이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취업난 등의 영향으로 인문계열 상위권 학생들은 경영, 경제, 미디어 관련학과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어문계열 관련 학과들은 최상위 합격점수에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라며 "자연계열에서는 AI, 반도체 등 정책적 신선편과, 대기업 계약학과 등과 연계된 학과에 상위권 학생들의 선호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최상위권 대학 인문계열에서는 학과보다는 대학 브랜드 선호 현상도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통합수능에 따른 이과에서 문과 교차지원 등으로 점수상향도 매년 달라지는 양상이라는 게 종로학원 설명이다.

/이현진 기자 lhj@

美 대선에 출렁이는 비트코인… 단기 변동성 주의해야

10월에만 14% 상승… 1억 돌파
美 대선구도 박빙, 불확실성 커져
차익 실현 나서는 투자자 증가

비트코인 가격이 10월에만 14% 상승하면서 1억원을 돌파해 '업토버(Uptober)'에 성공했다. 시장에서는 미국 대선(11월5일)이 다가온 만큼 단기적 가격 조정 후 최고가 경신을 위한 상승장이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가상자산 중개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6개월 만에 1억원을 돌파했다. 지난달 1일 8100만원(6만2000달러)으로 거래를 시작한 비트코인은 31일 1억130만원(7만2000달러)까지 상승했다. 한 달 사이 14%가 오르면서 올해 역시 업토버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업토버는 올라간다는 뜻의 '업(Up)'과 10월의 '옥토버(October)'를 합친 말이다.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월 한 달 동안 비트코인 시세는 평균 23% 상승했다. 지난달 1일 기준으로는 14% 상승했지만, 지난달 최저가(5만9000달러)로 계산하면 22% 상승해 평균에 근접하다. 이로써 지난 2019년부터는 6년 연속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소재 업비트 고객센터 시황판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으로 업토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업토버에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때문이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지속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친화적 발언과 규제 완화를 대표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금융 규제 기관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에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해 왔다면, 트럼프 후보는 규제 완화와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 촉진을 약속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Never sell your bitcoin)는 발언과 함께 비트코인을 국가준비금으로 삼아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밀라 해리스

후보 역시 현 바이든 정부 대비 가상자산에 대해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에 대한 친화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어떤 대선 결과가 나와도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지는 않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단기적 변동성은 심한 것으로 보인다.

1억100만원을 넘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9600만원까지 하락한 상태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접전을 이어가면서 트럼프 후보 재선 불확실성에 차익 실현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대통령 선거사전투표에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트코인 시세 상승에 반응한 단기 투자자들이 차익실현을 위한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가격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미국 대선 이후 비트코인이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은 여전히 많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트럼프는 '크립토 프레지던트'를 천명하며 수차례 가상자산 강경 지지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트럼프 재선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감기와 미국 대선이 있던 해마다 4분기부터 다음 해까지의 상승 패턴이 반복됐기 때문에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제프 켄드릭 스탠다드차타드(SC) 가상자산 연구 책임자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12만5000달러(약 1억6585만원)까지, 카밀라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7만5000달러(약 9951만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은행 예대마진 2개월 연속 확대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 733조
연말 이후 예대금리차 축소 전망

기준금리 인하로 예대금리는 낮아지는 반면 대출금리는 오르면서 은행들의 예대마진(대출금리-예대금리)이 2개월 연속 확대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732조812억원으로 집계됐다. 한달전과 비교해 1조1141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출신청이 줄어든 영향이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4월 4조4346억원 ▲5월 5조2278억원 ▲6월 5조3415억원에서 ▲7월 7조1660억원 ▲8월 9조6259억원까지 확대되다가 ▲9월 6조6029억원 ▲10월 1조1141억원으로 급격히 축소됐다.

가계대출 증가폭이 줄어든 이유는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대출규제로 부동산 거래량이 줄면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감소해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담대 잔액은 575조6687억원으로 한달 사이 1조923억원이 늘었다. 9월 5조9148억원에서 증가폭이 크게 감소했다.

문제는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예대마진이 2개월 연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대마진은 대출금리와 예대금리간의 격차로 은행의 수익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1일 기준 3.75~6.15%로 9월 초(3.68~6.08%)와 비교해 상·하단 모두 0.07%포인트(p) 상승했다. 농협은행을 제외한 4개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 하단은 4.09~4.47%로 4%대를 형성하고 있다. 5개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4.57~6.67%에 이른다.

고정금리의 지표금리가 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는 9월 초 3.330%에서 11월 초 3.304%로 0.026%p 하락했지만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더하면서 금리가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예대금리는 지표금리가 하락하면서 떨어지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5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상품 최고금리는 연3.15~3.55%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지난달 12일(3.15~3.80%)과 비교하면 상단기준 0.25%p 내렸다.

이로인해 예대금리차는 확대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6월 0.53%에서 7월 0.43%로 떨어진 뒤 8월 0.58%, 9월 0.75%로 올랐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은행의 예대금리는 낮아지는 반면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대출금리는 높아진 영향이다.

은행권에서는 연말 이후에야 예대금리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지표금리가 떨어지면 대출금리에 바로 반영되고 예대금리는 조금씩 내려가는데, 최근에는 반대로 예대금리가 먼저 내려가고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감소한 것이 뚜렷이 보인 후에야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여 연말까지는 이 상황(예대금리차가 높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KB금융그룹

국민의 편이자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퇴직연금,
KB증권으로
똑딱! 오세요

현금으로 바꿀 필요 없이,
갖고 있는 연금상품 그대로 옮겨주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시작되니까요

퇴직연금도,
커져라 똑딱! 깨비증권

ETF, 채권, 리츠 등
다양한상품 투자가능

비대면가입시
IRP제도수수료 평생 무료
*펀드보수 등 추가 발생가능

모바일에서 연금계좌
24시간 개설 가능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4-04082호(2024.10.11~2025.10.10) *〔DB〕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DC/IRP〕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 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 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투자 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약관 필독 *〈자산 가격 변동〉,〈환율 변동〉,〈신용 등급 하락〉 등에 따른 원금손실(일부 또는 전액)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과세기준 및 방법 향후 변동 가능 *연금 외 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부과 *IRP 수수료는 연 0.20%~0.25% (단, 비대면 개설 시 운용·자산관리수수료 면제) *ETF 거래 시 HTS 1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 0.1278%+2,000원, 모바일 0.1978% 기타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펀드보수 등 추가 발생 가능 *IRP 계좌개설 24시간 가능(단, 23:40~00:10 제외) *동일한 퇴직연금제도 내 이관·수권회사 공통 판매 상품만 실물이전 가능

KB증권

“2027년 AI 시장 대확장 도래… 운영개선 완성이 성장 기회”

SK, 이천 연구소 ‘CEO세미나’
AI·반도체로 글로벌 리더십 확보
운영개선 1.0서 3.0으로 확보 관건
2026년까지 80조 확보, 미래투자 추진

“차세대 챗GPT 등장에 따른 AI 시장 대확장이 2027년을 전후해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SK가 성장 기회를 잡으려면 현재 진행 중인 ‘운영개선(O/I)’을 서둘러 완성해야 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핵심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운영개선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SK그룹이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경기도 이천시 skm연구소에서 ‘2024 CEO세미나’를 열고 그룹의 미래 비전과 시급한 현안을 논의했다. 세미나에는 최태원 SK 회장,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포함해 주요 계열사 CEO 등 최고경영진 30여 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향후 AI 관련 사업 및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을 전망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그룹사 역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2일 경기도 이천 SKMS연구소에서 열린 ‘2024 SK그룹 CEO세미나’에서 폐막 연설을 하고 있다. /SK

량 집중을 주문했다. 그는 상반기 진행한 경영전략회의와 이천포럼에서도 같은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최 회장은 “SK가 성장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운영개선을 서둘러 완성해야 한다”며 “운영개선은 단순히 비용절감과 효율화를 의미하는 게 아닌,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무제표에 나오지 않고 측정되지 않지만 경영에 있어 중요한 ‘기업가정

신’, ‘이해관계자 소통’ 등을 강조했다.

AI 사업 방향은 SK가 보유한 기술력, 그룹 계열사 간 또는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가장 저렴하고 우수한 AI 데이터센터(DC)를 확보해 그룹 AI 사업을 글로벌 스케일로 확대하는 쪽으로 선정했다. 핵심과제로는 반도체 설계, 패키징 등 AI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고객 기반 AI 수요 창출, 전력 수요 급증 대비한 에너지 솔루션 사업 가속화

등을 제시했다.

SK그룹은 앞서 6월 진행한 경영전략 회의에서 2026년까지 80조 원을 확보해 AI 반도체 등 미래 성장 분야 투자와 주주환원 등에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운영 개선을 통해 3년 내 30조원 잉여현금흐름(FCF)을 만들어 부채비율을 100% 이하로 관리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최 회장은 CEO들에게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거시(Macro) 환경 변화를 잘 보고, 사별 특성에 맞게 사업 환경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운영개선’ 달성도를 정량화 및 측정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올해 본격화 한 SK그룹의 운영개선이 가속화 하며 최근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말 약 84조원에 달했던 그룹 순차입금은 손익 및 현금흐름 개선, 자산 매각 등 운영개선 활동을 통해 올 2분기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3분기 말에는 70조원대로 낮아지는 등 주요 재무지표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219개였던 계열사 수도 올 연말까지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EO들은 잉여현금흐름(FCF) 극대화 등 ‘운영개선(O/I) 1.0’ 활동으로 재무구조 안정화라는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고, 앞으로는 제조, 마케팅 등 ‘운영역량’을 제고하는 ‘운영개선 2.0’을 통해 본원적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운영개선 2.0 후에는 시장과 고객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 역량 중심의 ‘운영개선 3.0’으로 진화시켜야 한다는 방향성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SK하이닉스가 시장 선도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요인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8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지만,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앞세워 올해 3분기 영업이익 7조 원을 달성했다. 이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영업이익이다.

곽노정 SK하이닉스 CEO는 ▶낸드 플래시 생산기지인 청주 M15을 HBM 생산라인으로 구축하는 과감한 의사결정 ▶‘원 팀 정신(One Team Spirit)’ 기반 아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조직문화 등이 반전의 기회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나란히 ‘회장’ 단 정유경·정교선… 신세계 ‘쇄신’ 현대 ‘안정’

신세계·현대 큰폭 정기임원 인사단행
신세계, 계열 분리로 수익성 강화 집중
현대, 단일 지주회사 체제 안정적 경영

지난주 신세계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나란히 큰 폭의 내년 정기임원 인사를 단행하면서 업계 이목을 집중 시켰다.

정유경(쑤신세계 회장)과 정교선(현대홈쇼핑 회장) 등 양사 모두 새로운 회장을 배출하면서다. 이번 인사를 통해 양사의 방향이 달라질 전망이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해(9월)보다는 다소 늦게 인사를 단행했고 현대는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에 됐다. 실제 유통업계는 올해 큰 폭의 인사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신세계는 핵심 계열사 대표 전부를 교체하는 등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도 큰 폭의 인사를 단행했다.

◆신세계, 분리 통해 수익성 개선한다
올해 회장직에 오른 정용진 회장이



정유경
(주)신세계 회장



정교선
현대홈쇼핑 회장

본업 강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강조하면서 수시인사를 카드로 내밀었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기업 경쟁력을 빠르게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보여진다.

이에 정유경(쑤신세계백화점 회장)을 필두로 G마켓과 SSG닷컴, 신세계건설 대표 등의 수장들이 바뀐다.

이로써 신세계는 정유경(쑤신세계 회장)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백화점·이마트 부문을 계열 분리해 각자 독자경영을 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번 인사가 신세계그룹 전체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

이 될 거라는 기대높은 목소리도 나온다.

신세계 측 역시 이번 인사를 발표하면서 “올해가 계열 분리를 통해 성장의 속도를 한층 더 배가시킬 수 있는 최적기”라고 밝혔다.

신세계는 이르면 이달 계열 분리 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용진 회장이 이마트, 신세계푸드, 조선포털 등을 보유하고 있는 이마트그룹을. 정유경 회장이 신세계인터내셔널, 백화점, 센트럴시티 등을 보유한 신세계그룹을 갖는 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대, 단일 지주회사 체제로 함께 경영 이끌 것

현대백화점도 신세계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큰 폭의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신세계만큼은 아니지만 핵심 계열사인 현대백화점과 현대홈쇼핑 대표가 교체됐다.

올해도 의미있는 인사를 진행했다. 정교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이 현대홈쇼핑 대표이사 부회장에서 대표이사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교선 현대홈쇼핑

회장은 2009년부터 현대홈쇼핑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2012년 부회장에 오른 후 14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한 것.

아울러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직은 유지하며 형인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을 보좌한다.

이를 통해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을 보좌하고 단일 지주회사 체제의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그룹 경영 전반을 함께 이끌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대백화점그룹도 그간 계열분리 애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던 기업이다. 일각에선 이번 인사가 이같은 소문을 일축하게 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교선 부회장의 현대홈쇼핑 회장 승진은 업계의 불황 속에서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중장기 성장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룹 측은 강조했다.

◆갈지만 다르다

양사의 인사 결은 갈지만 다르다. 기업을 이끄는 총수가 젊다는 것과 남매·형제경영이라는 점, 그리고 젊은 트렌

드에 어둡지 않다는 것.

반면 신세계는 정용진 회장과 정유경 회장이 몇개월 차이로 나란히 회장직에 올랐지만 정지선 회장은 2007년 회장직에 올랐다. 당시 정지선 회장의 나이는 35세다.

또 정용진 회장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정유경 회장을 전략적인 카드로 내밀어 계열을 적극 분리했다면 정지선 회장은 동생(정교선)을 예우해 현대홈쇼핑 회장으로 승진시키며 단일 지주회사 체제의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정교선 부회장은 정지선 회장을 보좌하며 단일 지주회사 체제의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그룹 경영 전반을 함께 이끌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유통업계의 임원 인사는 신세계, 현대를 시작으로 롯데, CJ그룹도 인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빛나 기자 vitna@

해리스 대세 속 트럼프 방위비 압박… 한반도 정세 변화 예고

》 2면 ‘美 대통령 선거 D-1’서 계속

인구에 비례해 이번 대선에서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부여받는 주는 캘리포니아(54명)고, 이어 텍사스(40명), 플로리다(30명), 뉴욕(28명) 순이다. 더타임스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리스 후보가 선거인단 276명을 확보해 트럼프 후보(262명)보다 14명 더 많을 것으로 예측했다.

칼 비알리 유거브 데이터과학 부대표

는 “이번 대선은 사실상 7개 주에서 실시되는 선거라고 후보들도 여기고 있다”며 “해리스 후보는 몇 달 전부터 대체로 선두 자리를 지켜 왔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 만큼 경합주에서 앞서고 있다”고 밝혔다. ‘러스트벨트(쇠락 공업 지대)’에 속하는 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은 1992년 대선부터 민주당이 승리한 ‘파란 장벽’으로 분류되는 지역이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던 2016년에는 일시적으로 공화당이 승리했다. 그러

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하던 2020년 대선에서는 다시 민주당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그 어느 후보로도 쏠리지 않고 있어 핵심 경합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어느 후보가 당선될 때 우리나라 정세에 더 유리한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우리나라에는 대체로 부정적 요소가 많을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주한 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요구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 달 한 대담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칭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였다면 한국에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6000억 원)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후보가 언급한 100억 달러는 한미가 타결한 2026년 방위비 분담금(1조 5192억 원)의 9배에 달한다. 그는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다만, 북미 대화 재개는 트럼프 후보에게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정은 총비서는 핵 시설과 함

께 핵능력 고도화 방침을 천명하면서 이것이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번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지난 2017년 트럼프 집권 당시 북미 회담을 통해 김정은과 비핵화 협상을 열었던 전례를 다시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와 반대로,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민주당의 외교 정책을 그대로 계승해 한미동맹이 지속되고 공고화될 것이라 시각이 지배적이다. 해리스 후보는 방위비 분담금 사안도 “(한국 정부가) 이미 상당 부분 분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원승일 기자 won@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스마트한 자산관리까지

시니어의 모든 행복이 쭉~이어지도록

#2 안정된 노후 준비 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세심한 간병보험부터

삶의 여유를 더해주는
든든한 연금보험에

복잡한 노후 자산관리를
끝내는 원스탑 은퇴 설계까지

편안한 내일, 시작부터 끝까지
KB가 준비하겠습니다

시니어의 인생을 더 든든하게
Korea Best
KB금융그룹

든든한 보장부터

[KB 힘이되는 간병보험]

[KB 100세 만족 연금보험]

[KB골드라이프X]

[KB 힘이되는 간병보험]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특약에 따라 갹신주기 및 최대 갹신나이가 다를 수 있으며, 갹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충분히 설명을 받으실 바랍니다. · 보험 계약 전 자세한 상품내용과 제한사항은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2024-2261호(2024.10.10~2025.10.10)** **[KB 100세 만족 연금보험]** · 이 보험상품은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구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단,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계약 전, 자세한 상품내용과 제한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B라이프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98 KB라이프타워 www.kblife.co.kr 고객센터 1588-3374 · 별도 계약이 없는 한 계열사 상호간 채무보증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2024.10.11~2025.10.10** **[KB골드라이프X]**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품, 서비스 가입 전 약관 및 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KB골드라이프X 담당자(1522-45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B골드라이프X 홈페이지(www.kbgoldlifex.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2024-4897-1호(2024.10.08), 유효기간 2024.10.08.~2025.09.30까지**

KB국민은행 | KB손해보험 | KB라이프

KB증권 | KB국민카드 | KB자산운용 | KB캐피탈 | KB부동산신탁 | KB저축은행 | KB인베스트먼트 | KB데이터시스템

*** KB금융그룹**

與 ‘尹 녹취록’, 野 ‘李 1심 선고’… 11월 위기설 ‘동시다발’

與,尹-명태균 씨 녹취록에 ‘위정’ 대통령 국정 지지율 10%대로 추락

李, 선거법 위반 등 1심 선고 앞뒤 21대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과 위증교사 관련 재판 1심 선고가 있는 11월에 야당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소통하며 재보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정부여당도 위기를 맞고 있어 정치권 전반이 대혼돈에 빠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는 15일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1심 선고, 25일엔 위증교사 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 출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국민행동' 집회에 참석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해 고인이 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

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측은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나, 검찰은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위증교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현직 의원은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하긴 하지만, 의원직 상실형을 받으면 향후 피선거권이 박탈돼 21대 대선에서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갈 수 없다. 1심 선고 결과가 이 대표에게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명 씨 간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11월 위기설'에 정부여당도 휘말리는 모습이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대통령의 직접 사과 요구가 나오는 등 보수 진영 전체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하듯, 최근 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10%대로 내려앉아 정부 출범 후 최악 수준으로 추락한 상황이다. 1심 선고가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나와도 민심이 정부여당에 등을 돌려 거꾸로 위기가 심화될 수 있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정치원로들이 모인 상임고문단은 3일 비공개 회동을 통해 대통령실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은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

통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 전 오찬 회동에 나서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을 조기 설치하고 특별감찰관도 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한 바 있다. 3일 회동에선 김건희 여사가 활동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야 한다는 얘기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지율 폭락의 대위기를 탈출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성찰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데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독소조항 등을 삭제한 김건희 특검법 여야 합의 등 김여사 문제에 대한 특단의 선제적인 조치를 결단 ▲대통령 당선인 시기의 공천개입 논란에 대해서도 진정어린 사과 ▲국정기조를 대전환 및 인적쇄신을 단행할 것을 요구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尹,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 野 “대통령 자리가 장난이냐”

현직 대통령 불참 11년 만의 일
與 “정쟁 한 장면 연출 가능성” 옹호
野 “하고 싶은 일만 골라 하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열리는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것은 11년 만의 일이다. 여야는 3일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4일부터 677조4000억원의 2025년 예산안을 심사한다. 국회 예산안 심사는 4일 시정연설부터 시작하는데, 윤 대통령이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 대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할 전망이다.

시정연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열리는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0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자리를 나서며 인사하는 모습. /뉴시스

첫해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여야 대치 상황 속에서도 매년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해왔다. 심지어 2016년 10월24일에 있었던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이 드

러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에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31일에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여당의 10·11 제·

보궐선거 패배 후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하고, 여야 원내대표 및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1시간 가량 오찬을 가진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시정연설 불참을 결정한 것은 최근 정국 상황과 관련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통화 음성을 공개했다. 이어 야권에서는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나 '탄핵 소추'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여야의 극한 대결을 이유로 지난 9월22일 국회 개원식도 불참했다.

이에 여야는 3일 윤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시정연설이 정쟁의 한 장면을 연출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에서 “아마 국무총리가 대독하지 않을까 (싶다)”며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 하겠다고 거리로 나서는 분위기에서 차분한 시정연설이 되겠느냐. 정쟁의 한 장면을 연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여러 상황이 있으니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나와 시정연설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다”면서도 “시정연설을 앞두고 거대 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장외로 나가서 주장한 적은 없다”고 야권을 비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개원식도 오기 싫고 시정연설도 하기 싫다니 대통령 자리가 장난이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취임식 날 대통령의 임무를 다 하겠노라 선언했던 윤 대통령은 하고 싶은 일만 골라 하려는 것이냐”며 “후보 시절 기분이 내키지 않아 토론회를 쫓아다니며 내키지 않으면 불출석하는 버릇은 고치기 어렵나 보다”라고 비난했다. /서예진 기자 syj@

입 장 문

임진각 평화누리 대관 취소 관련 신천지예수교회 입장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가 벌어졌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위법·위헌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종교탄압 웬 말인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금 이 나라를 어디로 이끌고 가려는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눈이 멀어 국민을 둘로 나누고, 종교를 둘로 가르고, 결국 대한민국을 파탄으로 몰고 가려는 것인가?

우리 신천지예수교회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를 대관해 30일 <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을 개최하고자 했다. 국내의 수만 명의 수료생과 종교지도자들이 이미 입국해 행사 참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대규모 국제 행사였다. 그러나 경기관광공사는 대관 당일인 10월 29일 오전, 우리와는 단 한 마디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관을 취소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적법한 대우가 아니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처사다. 이미 입국한 각국의 종교지도자들과 수료생들에게 우리는 무슨 설명을 해야하는가? 한류를 외치며 세계화를 강조하던 대한민국이 종교탄압으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신천지예수교회에게 데모를 원하는 것인가?

우리는 모든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다. 7월 22일 대관 승인통보 후 10월 2일에는 대관비도 완납했다. 10월 16일에는 행사 규모, 배치도, 안전계획, 특수효과 불꽃 사용 등에 대한 실무 미팅을 진행했고, 경기관광공사는 행사의 모든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안전점검 심의도 완료했다. 특히 같은 날 경기도가 파주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이는 대북 전단살포 차단을 위한 조치로 우리 행사와는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사전 통보나 제제도 없었다. 더구나 10월 23일과 28일, 담당자들은 두 차례나 "대관 취소 계획이 없다"고 공식 확인까지 했다.

안정성 검토까지 완료된 행사를 특정 종교단체의 반대로 당일 취소한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며, 국민을 둘로 나뉘 국가를 분열시키는 행위다. 더욱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북한 자국'이라는 허울뿐인 변명을 내세워 대관취소를

지시했다. 그러나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다른 행사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특정 종교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한 행정처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민주국가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위헌적 행위이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신천지예수교회를 이 땅에서 몰아내려는 것인가? 특정 종교단체의 말 한마디에 허가했다가 취소하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던 말인가? 우리는 이 나라의 당당한 국민이다.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왜 차별받아야 하는가?

이대로는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신천지예수교회 수십만 성도와 거리로 나서기를 원하는가? 신천지예수교회는 그동안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그 결과가 이런 것이라면, 이제 우리의 권리와 정의를 위해 거리로 나갈 것이다.

신천지예수교회는 무식하고 차별해도 되는 2등 국민이 아니며, 이 땅에 2등 국민이 존재해서는 안된다. 이런 식의 차별과 탄압이 이 나라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는가? 착각하지말라.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국민에게 납득 가능한 대관 취소 결정 근거를 낱알이 밝히고 신천지예수교회 전 성도와 초청받은 국내외 귀빈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종교 차별적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수십만 명의 성도들과 거리로 나갈 것이다. 국제 인권단체들에 한국의 종교탄압 실태를 낱알이 고발하고, 가능한 민·형사적인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종교의 자유는 혐상의 대상이 아니다. 신천지예수교회와 모든 성도는 이 땅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할 수 있는 그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4. 11. 01.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일동

GREEN *Sweet* WINTER

강원 다래의 상큼 달콤함을 담은 겨울의 한 잔



다래 레드 스위트
5.9



다래 그린 스노우
ICE ONLY 6.9



강원특별자치도

우리나라 토종 과수 다래 농가와 함께합니다.

국민카드, 신사업 발판 회원유치 집중… 충성고객 확보 과제

4개월 간 신규회원수 50.8만명
전업 카드사 8곳 중 가장 빨라
플랫폼·데이터 사업 공 들여
해지도 많아 애플페이 도입 관심

KB국민카드가 4개월새 신규 회원수가 50만명을 넘었다. 매월 10만명 이상의 신규회원을 유치하면서 영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카드업계가 플랫폼과 데이터 사업에 집중하면서 신규 회원 확보가 중요해졌다.

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최근 4개월간 KB국민카드의 신규 회원수는 50만8000명에 달한다. 신규 회원 유입 속도가 전업 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지난 9월말 기준 총회원수는 1234만2000명으로 업계 4위다.



KB국민카드가 신규 회원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KB국민카드

비대면 영업채널을 강화하면서 신규 회원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카드모집인이 감소하는 추세인 만큼 홈페이지와 플랫폼 중심 영업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대표상품인 위시(WISH)카드와 마이위시와 아이위시, 위

시울 등 다양화 전략을 채택했다. 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혀 성공한 셈이다.

지난해 출시한 '쿠팡와우카드'도 효자 역할을 제대로 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쿠팡 상업자표시 신용카드(PLCC)로 쿠팡과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결제액의 최대 4%를 적립한다. 지난달 출시 1년 만에 100만장 발급에 성공하면서 베스트셀러 대열에 합류했다.

이처럼 KB국민카드가 신규회원 유치에 적극적인 이유는 신사업 발판 확보다. 올해 이창권 KB국민카드 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본업 내실 성장과 데이터 기업으로의 변화를 강조했다. 자사 플랫폼인 'KB페이'를 중심으로 할인, 캐시백 등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데이터 사업의 경우 회원 수가 중요하다. 카드사가 판매하는 데이터의 대부분이 소비 행태를 기반으로 만들어지

면서다. 신용카드사 소비데이터는 성별, 연령, 지역 등 면밀한 분석이 가능하다. 의뢰자가 요구하는 통계와 데이터를 직접 생성할 수 있다. 현재 금융데이터거래소에서 취급하는 데이터 8385건 중 소비관련 데이터는 81.1%(6803건)를 차지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생성할 수 있는 데이터는 예·적금, 대출 등 금융상품 선호도에 그치는 실정이다"라며 "카드사는 소비데이터를 취급하는 만큼 자영업자나 유통업체뿐 아니라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KB국민카드의 차기 과제는 충성고객 확보다. 신규 회원 모집이 활발한 한편 해지 회원 수도 많아져서다. 최근 4개월간 KB국민카드의 해지회원수는 38만4000명이다. 지난 9월말 기준 회원수 업계 3위인 현대카드와의 격차는 11만

2000명이다.

근소한 차이를 좁히기 위해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애플페이'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단 관측이다. 지난 8월 KB국민카드의 IT협력업체는 구인사이트에 'KB국민카드 애플페이 구축·테스트 경력자'를 모집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지난해 현대카드도 애플페이 서비스를 출시한 3월에만 신규 회원 20만명을 모집했다.

KB국민카드는 애플페이 도입을 두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의 예적금이나 신용카드는 한 명의 금융소비자가 여러 상품을 이용하는 만큼 신규 회원 모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로또청약’ 부른 분상제… 투기과열·공급감소 유발

강남 아파트 분양 열기 최고치
분상제 단지 시세차익 기대 커져
청약 과열, 주택 공급 감소 우려

올해 서울 강남권 신규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으로 청약 열기가 1년 내내 뜨거웠다.

분상제란 특정 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용산구에 조성되는 민간 아파트가 적용 대상이다.

주택 가격 급등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아파트값과 분양가가 동시에 오르면서 분상제 단지에 당첨되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강남권 신규 분양 단지 중심으로 실수요와 투기수요가 동시에 몰려 과열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청약분석 결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의 1순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투지도. /현대건설

위 청약에 해당지역에서만 3만7000여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025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서울 지역 분양단지 중 최고 경쟁률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용면적 84㎡ 기준 최대 22억원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된 반면 인근에 위치한 '래미안대치팰리스'의 비슷한 평형 매물과 비교해 약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면서다. 다만 거주 의무기간 2년, 전

매제한 3년 등이 적용된다.

지난 9월 진행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 트엘'의 1순위 청약 접수에도 5만6000여명이 몰려 무려 6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근에 위치한 '청담자이'의 비슷한 평형 매물과 비교해 약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구 도곡동에 공급한 '래미안 레벤투스'는 일부 세대에서 장례식장이 보이는 리스크가 있었다. 그럼에도 전용 59㎡ 분양가가 인근 '신반포자이' 같은 면적과 비교해 약 10억원 가량 저렴하다. '로또 아파트'로 입소문이 나면서 1순위에서 평균 402.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업계 일각에선 분상제에 따른 과열 현상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시장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당장은 주택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건설사는 이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적은 양의 주택을 공급,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감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경기 과주 운정3·4블록(950가구)은 2022년에 사전청약까지 마쳤으나 급등한 공사비를 감당할 수 있는 시공사를 찾지 못했고 사업은 끝내 취소됐다.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우미건설), 화성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리젠시빌주택) 등 5개 사업장도 분상제에 맞춰 시공이 어려워 사업을 중단했다.

은행권이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공급을 위해 갭투자 대출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시세차익 실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조건부 전세대출(소유권이 바뀌는 주택에 대해 전세대출을 받는 것) 제한을 연장키로 했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학과 교수는 "내집마련의 기회를 위해 생전 전세 제도가 투기에만 이용되고 있는 여파를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며 "갭투자로 수익을 볼 기대보다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있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지주·은행 등 18개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9개 금융지주회사와 9개 은행이 책무구조도를 시범 운영한다.

책무구조도는 각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임원의 구체적 책무를 지정한 문서로, 금융사고 발생시 명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18개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KB·신한·하나·우리·NH·DGB·BMK·JB·메리츠 등 9개 금융지주회사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IM·부산·전북·IBK 등 9개 은행이다.

시범운영 기간은 참여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참여 금융회사는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조직 등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또는 자체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금융위·금감원은 시범운영인 만큼 내부통제 관리 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을 묻지 않고 조기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센티브는 시범운영기간 ▲사전 컨설팅 실시 ▲책무구조도 관련 지배구조법 위반행위 비조치 ▲시범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 감경·면제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7월 책무구조도 제출대상인 금융투자업, 보험업 등의 준비상황을 살펴보면 다른 금융업권으로 시범운영 실시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하나금융, 100번째 어린이집 개원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 완료
1510명 일자리, 2802억 가치 창출

"앞으로도 육아 부담이 출산의 기쁨을 막지 않고, 지역 문제와 직장 환경이 보육의 한계가 되지 않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3일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를 통해 100번째 어린이집 '국공립 석포 하나어린이집'을 개원하고 이같이 말했다.

하나금융은 2018년부터 저출생문제 해결과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보육교사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장애아 치료비용 절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중소기업 어린이집 운영 및 근로자 보육부담 완화 등으로 연간 2802억원의 사회적 가치가 창출됐다.

우선 100개의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교사, 영양사, 조리사, 간호사, 아동심리상담사 등 총 1510명의 다양한 직간접 일자리를 지역사회에 창출했다.

또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5개소를 통해 180명의 장애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와 언어·행동 치료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13개소에서는 아이들에게 사회적 편견과 차



개원식에 참석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왼쪽 다섯번째)과 박현국 봉화군수(왼쪽 네번째)가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지역주민 등과 함께 100번째 어린이집 개원을 축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별없는 통합보육을 제공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10개소를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도 앞장섰다. 그 중 5개소는 인근 중소기업 직원들의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으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어린이집 설치비 및 운영비 전액을 하나금융에서 지원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업황부진에 움츠러드는 철강업계 고강도강재 등 미래사업 집중 투자

건설경기 회복 지연 등 영향
전기료 인상으로 원가부담 심화
구조조정 등 효율성 개선 속도

철강업계가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수익성 개선을 꾀하고 있지만 여전히 업황 전망은 어둡다는 평가가 따른다. 업계는 뚜렷한 반등 요인이 보이지 않아 내년까지도 실적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철강사들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주요 요인으로는 건설 경기 회복 지연과 철강 가격이 하락한 점이 지목된다.

국내 철강업계의 전반적인 부진 요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건설경기 회복 지연이 꼽힌다. 철강수요의 60% 가량을 건설산업에서 차지하는데 건설경기 자체가 부진하면서 철강 수요도 줄고 그에 따라 가격까지 떨어져서다.

전기료 인상으로 인한 원가부담도 겹쳐 실적 부진은 더욱 심화됐다. 특히 철강은 전기를 대량으로 소모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철강제품 원가에서 산업용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에 이른다. 업계에서는 전기요금이 1kWh(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로와트시)당 1원 인상되면 연간 원가 부담이 200억원 증가한다고 추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강사들은 고부가 제품 수요 확보와 사업 구조조정, 원가 절감을 통해 불황을 타개하고자 하지만 업계는 업황 부진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철강사들은 결국 일제히 움츠리는 전략을 택하면서도 동시에 미래 수익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며 업황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다.

포스코홀딩스는 구조개편 대상인 저수익 사업 및 비핵심 자산을 기존 120개에서 125개로 늘렸으며 이중 2024년 3분기까지 총 21개 구조조정을 완료해

6254억원에 달하는 현금유입효과를 거두는 등 자산 효율성 개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원전, 방산 등 성장산업 신규 수요 확보에 집중하고 고강도 강재 개발을 통해 판매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동국제강은 장기화된 전방산업 침체 속 시장 수급 개선을 위해 4분기에도 수요에 맞춘 탄력적인 공장 운영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4분기에도 업황이 반등할 뚜렷한 요인은 보이지 않는다”며 “당분간 철강사들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최태원 회장 “T1, 큰 감동과 자부심 선사” (SK)

롤드컵 통산 5회 우승 축전

최태원 SK 회장이 e스포츠 구단 T1에 “여러분이 보여준 패기와 팀워크가 저를 포함한 전 세계 팬들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주었다”고 축전을 보냈다.

최태원 회장은 3일 T1 선수단의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통산 5회 우승을 축하했다. T1은 지난 2일(현지시간) 영국 O2 아레나에서 열린 2024 롤드컵 결승전에서 중국 빌리빌리 게이밍을 3대2로 꺾고 2연패를 달성했다. 이로써 T1은 롤드컵 통산 5회 우승 기록을 세웠다.

최태원 회장은 “어려운 순간마다 서로를 믿고 헌신하며 만들어낸 성과이기에 가치가 더 크다”며 “이번 우승이 대한민국 e스포츠의 새로운 역사와 함께, 여러분의 큰 도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K는 그동안 다방면으로 T1과 한국 e스포츠 성장에 기여했다. SK텔레콤은 T1에 국내 최초 유망주 시스템을 도



입하며 e스포츠 저변을 확대했다. 실제 제우스 최우재, 오너 문현준, 구마유시 이민형 선수는 모두 유망주 그룹인 ‘T1 루키즈’ 출신이다.

구단 운영 외에도 2005년부터 8년간 한국 e스포츠협회 회장사를 맡고 각종 대회를 주최했다.

SK스퀘어는 T1의 밸류업을 위해 2022년 컴캐스트와 함께 13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고, 페이커 선수와 재계약도 성사시켰다. T1의 롤드컵 우승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글로벌 e스포츠 업계에서 입지전적인 페이커 선수의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SK텔레콤과 SK스퀘어는 “올해로 창단 20주년을 맞은 T1의 대회 우승을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T1이 글로벌 e스포츠 리더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현대차·기아, 국내 신용평가 최고등급 달성

신평가 3곳 ‘AAA’... 전망 ‘안정적’

현대자동차·기아가 국내 주요 신용평가회사 3곳에서 모두 최고신용 등급을 받았다.

3일 현대차·기아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는 현대차의 신용등급을 ‘AA A’로 상향했다. 한국기업평가에서 현대차의 신용등급 상승은 지난 2019년 11월(AA+) 이후 5년 만이다. AAA 등급은 한국기업평가의 20개 신용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대차의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평가됐다.

한국기업평가는 “현대차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파워트레인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본질적인 수익구조 개선, 우호적 환율 효과 등에 힘 입

어 시장 평균 이상의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아는 지난 9월 한국신용평가로부터 최고 신용 등급 AAA를 받은 후 지난 1일 나이스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까지 최고 신용 등급인 AAA를 획득했다. 글로벌 지위 상승과 제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 수익성·재무건전성 개선 등에서 높이 평가 받았다.

나이스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기아는 글로벌 완성차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며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내연기관차 등 다양한 시장수요에 대해 가능한 기술력과 생산역량이 업계 최상위 수준이고 지속적인 투자로 시장 변화 대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조현범 한국엔컴퍼니그룹 회장, 한온시스템 인수 메시지

“안정적 융합으로 프로액티브 가치 실현”

조 회장, 한온시스템 사업 방식 존중
“양사, 최고의 자리에서 시너지 창출”

“안정적 융합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프로액티브 가치를 실현하자.”

조현범 한국엔컴퍼니그룹 회장(사진)이 한온시스템 인수를 통해 양사가 최고의 자리에서 시너지를 창출하자고 주문했다. 조 회장은 한온시스템의 사업 방식을 존중한다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3일 한국엔컴퍼니그룹에 따르면 조 회장은 1일 한온시스템 전체 임직원에게 결함할 알리는 국영문 메시지를 전했다. 다양한 시너지 극대화 전략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완전한 융합



을 이뤄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조 회장은 “회사는 지주사 등 모든 자원을 활용해 한온시스템과 시너지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금까지 그래왔듯 최고의 자리에서 함께 성장하자”고 제언했다. 이어 “쉽지 않은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도 그룹 임직원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사명은 ‘프로액티브한 혁신과 미래 가치의 창출’이며 이는 모든 구성원이 협력할 때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조 회장은 메시지를 통해 ▲모빌리티 테크 리더 ▲지속 가능 성장 ▲혁신

의 현실 ▲두 조직의 온전한 융합 등을 강조했다. 특히 프로액티브 컬처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불확실한 글로벌 시장 상황에서 장기 성장, 중단기 수익 회복을 동시에 이뤄야 하는 미션이 있다”며 “한국엔컴퍼니그룹 고유 문화인 ‘프로액티브 컬처’로 함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프로액티브 컬처는 우리 구성원이 능동적·혁신적으로 일의 주체가 되는 게 핵심”이라며 “지주사 한국엔컴퍼니를 포함 그룹 전체가 한온시스템 전략·인사·재무·법무·PR 등 모든 부문에 자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3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 매출 점유율 1위

갤럭시 S 시리즈 판매 호조

삼성전자가 3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매출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가 최근 발표한 ‘2024년 3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 매출 점유율’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22.8%로 1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에 이어 올해 3분기에도 매출 점유율 1위를 차지

했다. 22.8%는 지난해 22.6% 대비 0.2% 상승한 수치다.

애플은 21.6%로 2위를 기록했다. 중국 브랜드 비보, 오포, 샤오미는 각각 15.5%, 10.8%, 8.7%로 3위부터 5위까지 이름을 올렸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삼성전자가 23% 가량의 매출 점유율을 차지하며 인도 스마트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갤럭시 S 시리즈 판

매 호조로 매출 점유율이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또 중저가 세그먼트에서 더 높은 가격대의 제품이 판매되는 효과를 위해 갤럭시 A 시리즈에 갤럭시 인공지능(AI) 기능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3분기 인도 스마트폰의 매출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다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에코프로 “기아타이거즈 우승 비결 배워야”

‘경영메시지 5가지’ 임직원 공유

에코프로가 사내 홍보 채널을 통해 천만관중을 돌파한 2024 프로야구에서 우승한 기아의 비결을 임직원들과 공유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에코프로는 사내 홍보 채널 ‘에코톡톡’을 통해 ‘프로야구에서 배우는 경영메시지 5가지’를 임직원들에게 공유했다고 3일 밝혔다.

에코톡톡은 기아의 우승 요인으로 첫번째 ‘신구의 조화’를 꼽았다. 선수단 내 노장 선수의 경험과 신예 선수들의 도전정신이 시너지를 낸 것이 우승 비결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두번째 요인은 ‘포수의 희생 정신’이다. 에코톡톡은 “기업에서도 드러나지 않지만 분야별로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묵묵히 조직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직원들의 성과를 인정하고 대우해줘야

한다”며 “현장의 운영직 직원들은 야구경기로 비유하면 포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세번째 요인은 ‘데이터 활용 능력’이다. 기아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타자들 체력이 6월에 급격히 떨어지면서 승률이 낮다는 것을 분석하고 체력 훈련에 집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네번째 요인은 위기 뒤에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것이다. 위기 상황에서 많은 기업이 도태될 때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한 기업은 위기 뒤 찾아오는 기회를 통해 독보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코톡톡은 리더의 소통 능력에 주목했다. 이범호 감독처럼 권위주의를 벗어 던지고 솔선수범해 현장의 고충과 분위기를 파악하려 노력하는 리더가 기업의 밝은 미래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차현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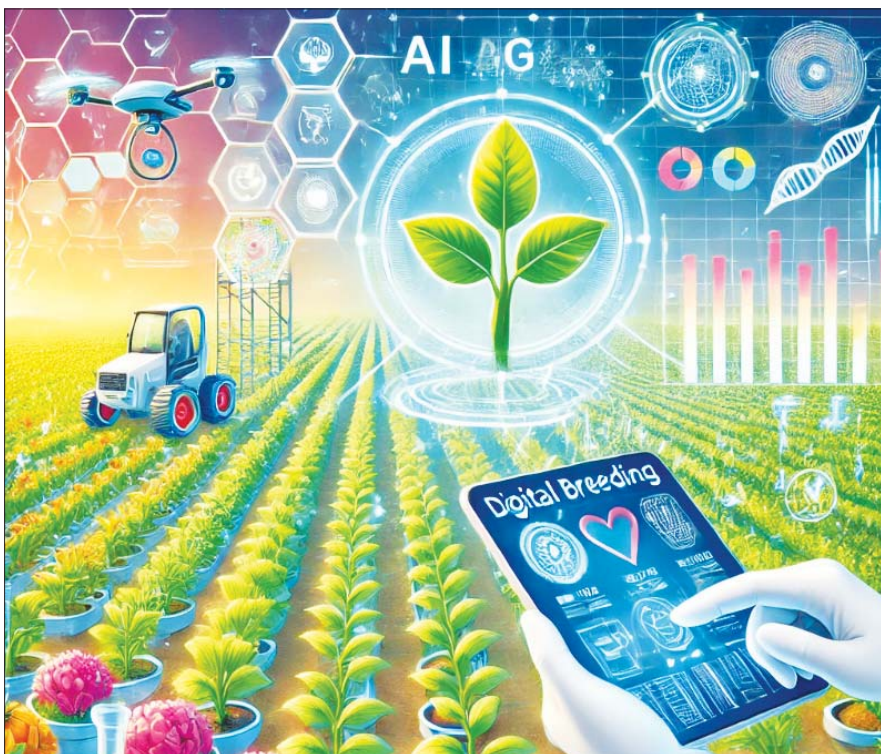
AI 기반 디지털 육종, 기후위기 속 식량 안보 해법으로 주목

韓 종자산업 미래 전략으로 부상
우수 품종 신속 선별·개발하는 방식
한국, 디지털 육종 기술 초기 단계
정부 지원·산학연 협력 등 필수적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육종' 기술이 기후 변화와 식량 안보 문제의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디지털 육종은 AI, 빅데이터,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작물의 유전 정보를 정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품종을 신속히 선별·개발하는 방식이다. 전통적인 육종 방식은 육종가의 경험과 감각에 의존했다면, 디지털 육종은 데이터와 AI의 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품종 개발이 가능하다.

특히 디지털 육종의 가장 큰 강점은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디지털육종 기술을 사용하는 모습'을 담은 AI 이미지.

신품종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6~8년이 걸리던 육종 기간을 3년 이하로 줄일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육종은 기후 변화로 인한 고온, 가뭄 등 극한 환경에 강한 작물 개발에 유리하다. AI가 작물 유전자와 기후 데이터를 분석해 내열성, 내건성

특성이 강화된 품종을 선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종자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기업들은 이미 디지털 육종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바이엘(구 몬산토)은 이스라엘의 생명정보기업 엔알진(NRGene)과 협력해 유전자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육종 플랫폼을 구축, 다양한 환경 스트레스에 강하고 생산성이 높은 품종을 개발 중이다.

반면 한국의 디지털 육종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다. 전통 육종 및 분자육종 기술은 세계 평균의 70~80% 수준까지 도달했지만, 디지털 육종 기술은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3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해 디지털 육종 기술의 상용화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관련 연구와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농촌진흥청은 2027년까지 '국가 기반 육종 플랫폼 개발 사업'을 통해 디지털 육종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향후 농업 생명 빅데이터를 수집·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AI 기반

육종 기술 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중소 종자기업들도 디지털 육종 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육종 활용 플랫폼' 구축 중이다.

디지털 육종이 농업 혁신을 앞당길 기술로 기대되는 한편,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작물 유전자 데이터 사용에 따른 개인 정보 보호 문제 등도 대두될 수 있다. 이에 디지털 육종 기술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 기술적 발전뿐 아니라 법적·정책적 지원과 시장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업 관련 전문가는 디지털육종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농업 혁신을 이끌 핵심 기술"이라며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인 투자와 산학연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육종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 강한 작물을 개발하면 식량 생산이 안정화되고 식량 자급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네카오, 뉴스 편향성 논란에 입점 심사 개편

<네이버+카카오>

언론사 입점 기준 새 모델 도입 추진
편향성·자극적 뉴스 노출 비판 해결
카카오 "공개 가능한 정량평가"
네이버 "수백명 구성 풀단 활용"

카카오가 언론사 입점 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네이버 또한 연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개편안을 내놓는다. 양사 모두 언론사의 입점 심사 기준 의혹과 함께 포털 사이트 메인에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자극적인 뉴스 기사가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는 지적에 따라 개편을 진행하게 됐다. 양사는 입점 심사에 있어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와 네이버가 지난해 5월 편향성 이슈로 잠정 중단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대신해 각개 기준을 세운 언론사 입점 기준을 세운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2015년부터 네이버와 카카오를 중심으로 포털과 뉴스 제휴를 맺은 언론사를 선별한 민간 기구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활동을 중단하고 7월 2.0 출범을 앞두고 포털을 둘러싼 공정성과 편향성 논란이 터져나오



네이버가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 간 네이버쇼핑 내 일부 버티컬 채널의 유입 수수료를 감면하고, 상생을 위한 온라인 판촉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네이버

며 활동을 잠정중단했다. 네이버는 12월 뉴스혁신포럼을 출범시켜 제평위 개편을 위한 숨 고르기에 들어갔으나 다시금 논란이 일었고 제평위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카카오는 지난 1일 이달 시행하는 포털 다음(Daum) 뉴스의 새 언론사 입점 프로세스에 관한 신규 모델 상세 설명을 내놨다.

카카오는 다음 뉴스 새 입점·제재 모델 원칙으로 ▲목표에 부합한 '핵심요소' 집중 ▲입점 후 준수 여부 지속 추적 ▲끊임없는 개선·보완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공신력을 갖춘 언론/기자 유관

단체 소속 여부와 회원사로서의 정관 및 윤리조항 준수 여부만 확인 되면 나머지는 모두 정량평가로 입점 여부를 가른다. 정량평가는 자체 기사와 전문기사 비율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보는데, 아직 카카오 측의 자체 비율은 확정되지 않았다.

카카오 측은 "100% 공개 가능하고 100% 측정 가능한 입점 모델을 목표로 했다"며 "여러 평가항목을 하나하나 점수를 매겨 합산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핵심요소(자체 생산력, 전문성, 지속성)의 충족 여부를 Pass/Fail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개편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며 수백 명의 전문가들을 활용한 언론사 심사 시스템을 고려 중이다.

네이버의 뉴스혁신포럼은 최근 언론사의 입점, 제재, 퇴출 등을 심사할 때 수백 명으로 구성된 풀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디어 전문가 등 수백 명이 포함된 풀단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수십 명의 심사위원을 구성, 매체의 입점·퇴출을 심사하는 방식이다. /김서현 기자 seoh@

KT, 6G 저궤도 위성 사업 본격화

KT SAT·KAI 업무협약 체결

KT가 저궤도 위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KT는 3일 KT SAT,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6G(6세대 이동통신) 및 저궤도 위성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6G 시대에는 지상 통신을 넘어 위성 영역까지 커버리지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저궤도 위성 산업은 스페이스X와 아마존의 카이퍼 시스템즈(Kuiper Systems)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선도하고 있다.

저궤도 위성은 지구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고도 500~1200km에서 공전하며, 정지궤도(Geostationary Earth Orbit) 위성(고도 약 3만5800km)에 비해 데이터 전송 지연 시간이 짧아 고속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업은 통신위성 시스템의 핵심 기술 개발과 관련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력하고, 6G 저궤도

통신위성과 유무인복합체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KT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과 지상의 무선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연동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KT SAT은 다년간 정지궤도 위성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저궤도 위성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고, 저궤도와 정지궤도를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다.

KAI는 저궤도 위성 시스템 개발과 유무인복합체계 구축을 담당하며, 군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군 주도 위성통신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영섭 KT 대표는 "6G 시대에는 지상 네트워크와 위성 네트워크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중요하며, KT는 이동통신과 위성통신을 대표하는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6G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LGU+, 미래 보안 꿈나무 해킹대회 연다

고등·대학생 '시큐리티 해커톤' 개최

LG유플러스는 보안의 중요성을 알리고 미래의 보안 전문가를 발굴하기 위해 고등·대학생이 참여하는 해킹 대회 'LGU+ 시큐리티 해커톤'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큐리티 해커톤은 해킹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4인 1팀으로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인공지능(AI) 서비스·프로그램에서 보안 취약점을 찾거나, 암호를 해독하는 등 단계별로 문제

를 해결하면서 점수를 획득한다. 온라인 예선과 오프라인 본선을 거쳐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최종 우승팀에게는 상금 1000만원이 제공된다.

LG유플러스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대회 운영 시스템과 부정행위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실제 사례와 유사한 환경을 기획해 문제로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대회를 통해 보안에 대한 인식과 기술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

기업 평균 사회공헌비 5% 증가

최근 5년래 최고치 기록

지난해 기업의 평균 사회공헌 지출이 최근 5년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사회공헌 분야는 환경이 가장 많았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247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 주요 기업의 사회적 가

치 보고서'를 발표하고 3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기업 사회공헌 지출, 신규 사회공헌 프로그램, 사회공헌 인식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현황, ESG 경영 활동 등이 담겼다.

기업 1곳당 사회공헌 지출액은 160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최고치다. 지난해

전체 사회공헌 지출금액은 총 3조5191억원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석 기업 1곳당 평균 이익이 2022년 7767억원에서 지난해 4847억원으로 37.6% 급감했는데도 평균 사회공헌 지출액은 오히려 5.0% 증가했다.

특히 ESG 중 환경 관련 제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업들은 신규 사회공헌 활동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 ▲순환 경제 ▲친환경 기술 투자 및 상품개발 ▲환경 보전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김승중 기자 sejkim@



MUSEUM L

다양한 장르의 특별한 전시 **뮤지엄엘**

GRAND OPEN

오픈 기념 할인 & 이벤트 진행중

MONA LISA

모나리자 이머시브

2024.07.26 - 2025.07.25 뮤지엄엘 1관

ALBERTINA MUSEUM COLLECTION

ALEX KATZ

알렉스카츠

2024.07.26 - 2024.11.17 뮤지엄엘 2관

위대한 농구선수 75인 전

2024.07.26 - 2024.12.15 뮤지엄엘 3관



@museum.l

카메라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오픈특가,
카페할인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뮤지엄엘 인스타그램> 링크로 연결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33 상상플랫폼 1층

美 10년물 국채금리 4.3%대 유지 증권사, 단기·적극 투자 ETN 발행

美 ‘고용쇼크’에도 국채시장 유지
NH투자증권, ETN 2종 신규상장
메리츠증권, 美 TIPS 추종 상품 운용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3%대까지 빠르게 상승하자, 국내 증권사들이 이를 추종하는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을 출시하며 수익 창출에 나서고 있다.

3일 뉴욕 채권시장에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장보다 2.3bp(1bp=0.01%포인트(%p)) 하락한 4.363%를 기록했다.

지난달 대형 허리케인 ‘헬린’이 미 대륙을 강타하며 미국의 신규 일자리가 약 4년 만에 가장 적게 증가하는 ‘고용 쇼크’를 겪었으나, 국채 시장은 크게 하락하지 않고 4.3%대를 유지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으로 지난 9월 16일 3.618%까지 낮아졌으나, 이후 급증하는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 등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국내 증권사들 역시 이러한 시기적 특성을 겨냥해,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적극 투자할 수 있는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을 내놓고 있다.

NH투자증권은 ‘N2 레버리지 국채 10년 ETN’, ‘N2 레버리지 국채 30년 ETN’, 총 2종의 상장지수증권(ETN)을 신규 상장했다고 30일 밝혔다.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ETN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모습.

NH투자증권의 경우는 ‘N2 레버리지 국채 10년 ETN’을 발행해 10년 만기 국고채에 투자한다.

레버리지 상품인 만큼 수익률의 2배를 수취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 상품이다. NH투자증권 측은 “국채 10년물 대비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대신, 장기금리 하락 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국채 30년물에 기반하는 ‘N2 레버리지 국채 30년 ETN’까지 내놔다.

메리츠증권은 국내 상장지수증권(ETN) 시장 최초로 미국 물가연동국채(TIPS)를 각각 추종하는 ETN을 상장해 운용하고 있다. ‘메리츠 미국 인플레이션 국채 ETN(H)’과 ‘메리츠 미국 레버리지 인플레이션 국채 ETN(H)’

은 미국 물가연동국채인 TIPS 3종을 추종하는 상품이다. 환헤지를 실시해 환율 변동 위험에서 자유롭다는 부분이 해외 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나 ETN과 다르다.

상장된 ETN은 증권사 상관없이 주식 거래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거래가 가능하며, 주당 가격은 4종 모두 약 1만원 내외로 소액투자까지 할 수 있어 투자자로서는 투자 접근도가 높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ETN 상품이 금리 인하기에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으로 기조를 갑자기 틀거나 인상 속도를 늦추게 되면 수익률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임원 ‘자사주 매입’ 랠리에도 삼성전자 주가 부진 ‘여전’

지난달 임원 17명, 3.3만주 매입
4분기 중 ‘HBM3E’ 판매 확대 전망
3분기 실적 기대치 하회… 목표가 ↓

삼성전자의 주가가 ‘6만 전자’ 턱밑에서 등락중인 가운데, 삼성전자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주가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삼성전자 임원 17명은 자사주 총 3만 3318주를 매입했다. 지난달에만 삼성전자 임원들이 매입한 자사주 금액은 약 20억원에 달하고, 올해 매입한 자사주 금액은 총 140억원에 육박한다.

가장 많은 자사주를 매입한 임원은 노태문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부문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 사장이자 노 사장은 지난달 11일 주당 6만원에 보통주 5000주(총 3억원)를 매입했다. 노 사장은 올해 3월에 5000주, 9월에 5000주를 매입해 총 2만 8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은 책임경영 의지로 해석돼 주가 부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중가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9월 5일 6만 9000원을 기록하며 7만원선이 깨졌고 지난 10월 15일 이후로는 줄곧 ‘6만 전자’에 머물러 있다.

삼성전자 주가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는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3분기 실적이 꼽힌다.

삼성전자는 지난 31일,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9조 183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77.37% 증가했다고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삼성전자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전 분기 대비 12.1% 감소한 수치로 시장에 실망감을 안겼다. 이번 영업이익은 증권가 전망치(컨센서스) 10조 2932억원을 10.8% 하회한 수치다. 특히 반도체(DS) 부문 영업이익은 전 분기 영업이익(6조 4500억원)보다 40.2% 감소하며 3조 8600억원에 그쳤다.

다만,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HBM3E의 주요 고객사 품질 검증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확보했다고 강조하며, 4분기 중 판매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증권가는 임원들의 자사주 매수 랠리와 HBM3E 공급 발표에도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낮추는 분위기다.

▲다올투자증권(11만원→9만 3000원) ▲한화투자증권(9만 5000원→9만원) ▲한국투자증권(9만 6000원→8만 3000원) ▲대신증권(10만원→8만 5000원) ▲BNK투자증권(8만 1000원→7만 6000원) 등이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를 하향했다.

고영민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HBM3E 웨데스트가 유의미하게 진전됐다는 건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요인”이라면서도 “HBM3E 12단이 아닌 8단일 가능성이 크며, 삼성전자의 HBM이 고객사의 하이엔드 제품에 탑재되는 것이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금 거래대금 1.9兆 돌파 안전자산 선호 ‘지속’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미국 대선 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면서, 올해 국내 금 거래대금이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금 거래대금은 1조 9634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거래대금(1조 1286억원)을 74%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일평균 거래대금은 232억원으로 1월 대비 344% 증가했다. 일평균 거래량은 187kg으로 지난 1월 대비 211% 늘었다.

거래소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 가시화 등으로 금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힘입어 거래소 금 시장에서 금 1kg 종목 가격은 지난달 말 기준 1g당 12만 7590원으로 연초(8만 6940원) 대비 47% 급등했다.

올해 들어 투자자별 금 거래 비중은 개인이 4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기관(37%), 실물사업자(19%) 순이었다.

개인투자자가 금 시장 회원인 13개 증권사에 개설한 금 거래 계좌 수도 지난해 111만개에서 올해 120만개까지 늘었다.

한국거래소는 “금 시장을 통해 금 거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말했다. /원관희 기자



코스피가 전 거래일(2556.15)보다 13.79포인트(0.54%) 하락한 2542.36에 장을 마감한 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743.06)보다 14.01포인트(1.89%) 내린 729.05에 거래를 종료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79.9원)보다 0.5원 떨어진 1379.4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뉴시스

금주 국내증시, 美 대선 등에 변동성 클 듯

내일 美 대선, 6일~7일 FOMC 결과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고조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1.58% 하락한 2542.36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반등하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지수 상승을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주 동안 개인과 기관은 각각 8153억원과 6695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인 1조 4790억 원을 순매도했다.

이번 주는 오는 5일(현지시간) 미국의 대선과 6~7일 FOMC 결과가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이벤트 이후 주식시장 향방이 어떻게 될지 주목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미국 고금리 환경 지속, 미 신정부 정책 불확실성, 인공

지능(AI) 수익화에 대한 의구심 재부각 등을 증시하락 요인으로 꼽았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은 미국 신정부의 정책 불확실성과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이 반영된 것”이라며 “AI 수익성 우려와 고금리 지속, 신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주가지수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수혜주와 중국 경기 부양 관련주 등 정책 이슈와 관련된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병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FOMC가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한 후, 추가 경제 지표와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 기조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금리 인하의 시장 영향은 중립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원관희 기자 wkh@

3분기 실적 ‘양호’… 수주·재무구조 등 개선

metro 관심종목
GS건설

전년비 매출 0.1%, 영업이익 36.2% ↑
신규수주 133.2% 급증… 부채비율은 ↓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업 전반의 부진 속에서도 GS건설이 3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러한 실적 개선으로 인해 GS건설의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한달간 GS건설의 주가는 2.84% 하락했다. 9월 정부가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GS건설이 3분기에 기대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커지고 있다. GS건설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한 3조 100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818억원으로 36.2% 증가했다. 특히 신규수주가 4조 614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3.2% 급증하며 시장의 기대를 뛰

어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GS건설의 재무구조도 개선됐다. 3분기 부채비율은 238.8%로, 직전 분기 말 262.5%에서 23.7%포인트 하락했다. 김기룡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수주와 실적, 재무구조 등 여러 부문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GS건설은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철근 누락 사태를 극복하면서 이익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장윤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보수적 원가 현실화 이후 3분기 연속 91%대에서 유지되고 있는 원가율은 실적 개선의 방향성이 단순히 일회성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에서는 GS건설의 주가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안정적인 이익을 유지와 자회사 매각, 입주 증가로 현금 흐름이 개선되면서 실적과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만 남았다”며 “최근 일시적인 주가 하락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중기부, ‘K-TOP’ 시범서비스… 기업 투자유치 적극 지원

〈한국형 기술평가 플랫폼〉

AI 기반 기술평가 모형 3종 탑재
2.4만개 프로젝트 우선 적용 대상
내년 기술금융 프로그램 개발 착수

중소기업 연구개발(R&D)과 창업 관련 지원사업 참여기업 평가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의 한국형 기술평가 플랫폼 ‘K-TOP’ 서비스가 4일 본격 개시한다.

12개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지난 5년간 연구개발(R&D)을 지원받은 2만 4000여개 프로젝트가 K-TOP의 우선 적용 대상이다.

이를 통해 정책 지원 효과를 제고하고 기술평가 데이터를 개방해 기술금융과 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K-TOP(Korea - Technology rating Open Platform) 서비스는 협약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서비스를 한 뒤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기업에 개방한다.

앞서 중기부는 ‘중소기업 도약 전략’에 따라 기업·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 민간단체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그리고 중기부 산하인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산업통상자원부 산

한국형 기술평가 플랫폼 ‘K-TOP’ 평가모형		
기술혁신역량지수 Tech-Index	개요	▶기업의 혁신 역량과 성장가능성을 지수화하여 제공 ▶타기업 대비 상대적 위치정보와 분석의견 제공
	입력정보	▶기업정량정보(기술개발, 지식재산권 실적 등) ▶일부 재무정보(급여, 개발비 등)
기술평가표준모델 KTRS-FM	개요	▶기업 보유 기술의 사업성 등급 및 평가의견 제공 ▶신속 보증지원 및 업력 초기기업 평가에 최적화
	입력정보	▶기업 정량정보(R&D 지표 14개) ▶25개 내외 체크리스트 문항
기술원천성 평가모형	개요	▶특허 DB 분석을 통해 기술의 핵심성, 독창성, 파급성 등 분석 ▶기술의 원천성 등급과 분석 의견 제공
	입력정보	▶기술개요 입력→핵심키워드 추출해 텍스트 유사도 기반으로 유사 특허기술 군집과 비교·분석

자료/중소벤처기업부

하산업기술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특허청 산하 한국발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기보, 기정원, 창진원 등 주요 공공기관들은 기술평가 데이터 15만여건, 특허정보 800만여건에 근거를 둔 평가모형을 기업 평가, 지원효과 분석,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K-TOP 평가결과를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최소 요건으로 설정하거나 사업 성과지표로 도입하는 등 개별 지원사업 특성에 맞게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적정한 지원기업을 선별하거나 사후관리에 필요한 예산·인력도 효율화한다.

시중은행, VC 등 민간 금융기관이 신규 투자처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K-TOP 등급·점수가 일정수준 이상인 우수기업의 평가결과를 공유해 해당 기업의 투자 유치도 적극 지원한다.

또 K-TOP과 시중은행 플랫폼을 연계해 기보의 보증 및 은행 대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기술금융 프로그램 개발도 내년초 착수한다.

K-TOP 활용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평가모형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새로 입수한 기술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K-TOP 성능을 고도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보와 유럽투자은행

이 협업해 ‘글로벌 진출기업 평가모형’을 만들거나 ‘스타트업 평가모형’ 등 기업 유형별 특화 평가모형을 추가 개발해 K-TOP에 탑재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김정주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산업부, 과기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까지 K-TOP 도입을 확산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협약기관 외 모든 중소기업들에게도 K-TOP을 전면 개방해 민관 합동으로 중소·벤처기업 기술평가 기틀을 견고히 다져 나갈 것”이라며 “AI 기반의 K-TOP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 지원해 정부 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기술 평가가 어려워 기술 금융 구현이 제약된 민간 금융기관과 벤처캐피탈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TOP에는 ▲기업 혁신성장역량 ▲기술 사업성 ▲기술 원천성 평가 등 AI 기반 기술평가 모형 3종류가 탑재돼 있다.

이들 평가모형들을 통해 기업의 기술 역량을 손쉽게 등급·점수화할 수 있다. 또 재무·특허 정보 등 일부 평가 입력정보 자동 수집, 기업 자가진단 및 평가결과 조회·전송 등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중앙회

5급 신입직원 공개 모집

내일부터 21일까지 서류 접수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역량 있는 신입직원(5급)을 공개 모집한다.

3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804만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고,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1962년 설립한 경제단체다.

채용분야는 일반사무직으로 중기중앙회 인사규정상 결정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채용방식은 ‘정규직(5급) 채용 연계형 인턴’으로 2개월의 현업부서 인턴십을 거쳐 우수 수료자는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한다.

서류접수는 오는 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채용 관련 추가정보는 중기중앙회 입사지원 전용 사이트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반값으로 렌탈 하세요”

할인·캐시백 등 특별 프로모션

코웨이가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이달 27일까지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3일 코웨이에 따르면 행사 기간 동안 자사몰인 코웨이닷컴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최대 12개월 렌탈료 반값 할인, 최대 12만 원 캐시백 지급, 제휴 쿠폰팩, 사은품 제공 등 폭넓은 혜택을 제공한다.

코웨이 인기 제품인 아이콘 정수기 시리즈 신규 렌탈 고객에게 6개월의 렌탈료를 50% 할인해준다. 또한 비텍스 안마베드와 마인 시리즈, 시그니처 안마의자 등 비텍스 인기 제품을 대상으로 최대 12개월의 렌탈료 반값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김승호 기자

에이스침대

‘리블리노멤버’ 프로모션

구매 금액대별 고급 침구세트 증정

에이스침대가 12월1일까지 ‘리블리노멤버(Lovely November)’ 프로모션을 펼친다.

3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오프라인 전 매장에서 침대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안락한 침실 분위기를 극대화해 줄 고급 침구 세트를 제품 구매 금액대별로 증정한다.

에이스침대 대리점에서 400만원 이상, 백화점 입점 매장에서 430만원 이상 구매시 ‘웰크론 차렷이불 세트’(K)를 증정한다. 또한 대리점에서 670만원 이상, 백화점 입점 매장에서 700만원 이상 구매시 ‘웰크론 호텔 베딩 세트’(Q/K)를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중기중앙회,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서 1550만달러 수출 성과

KBIZ관 통해 상품박람회 참가 지원
408건, 3200만 달러 상당 상담 진행

중소기업중앙회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서 부대행사로 한국상품박람회 참가를 지원해 중소기업들이 10건, 1550만달러의 수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3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도움을 받아 지난달 29~30일에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부대행사로 열린 박람회에서 뷰티, 푸드 등 25개 중소기업, 29개 부스로 ‘KBIZ관’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시식, 시연 등 참여기업의 홍보활동을 지원하며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전시회 기간 동안 KBIZ관 참여 25개 기업은 408건, 3200만 달러 상당의 상담을 진행했고 실제 10건의



중소기업중앙회는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부대행사로 열린 한국상품박람회에 ‘KBIZ관’을 꾸렸다. 참가 기업들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수출 구매계약 업무협약을 체결, 향후 수출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기능성 음료를 생산하는 테일러팜스 이은천 상무는 “이번 전시회 참가를 통해 스위스 소재 바이어와 500만 달러 상당의 수출 구매계약 업무협약을 체결해 첫 유럽 진출 성과를 이

어냈다”며 “오스트리아 바이어 뿐만 아니라 독일, 헝가리, 영국, 프랑스 등 여러 국적의 바이어와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성과가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초화장품을 생산하는 트레이딩랩 이승훈 대표는 “주로 중동 국가 바이어

공정위, 야마자키마작-두광기계 담합 적합… 과징금 1.7억 부과

“공공 예산낭비 초래 행위 적발·제재”

글로벌 공작기계 제조사인 일본의 야마자키마작이 국내 공공기관의 공작기계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이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3일 세계 정상급 공작기계 제조사인 야마자키마작의 한국지사인

한국야마자키마작과 두광기계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국야마자키마작은 공공기관 공작기계 구매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자신의 판매대리점인 두광기계와 2019년 12월~2022년 10월까지 충남테크노파크 및 전남테크

노파크가 발주한 5건의 공작기계 구매입찰에서 입찰제안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담합했다. 두광기계는 한국야마자키마작이 낙찰받으면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담합에 가담했다.

담합 결과 한국야마자키마작은 4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으며 낙찰금액은

배정예산의 100%에 근접했다. 1건은 제3자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작기계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음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김현철 원장(오른쪽 8번째)이 지난 1일 경북 구미 제1국가산단에서 구자근 국회의원(오른쪽 9번째), 윤성혁 산업부 장관(오른쪽 7번째), 김학홍 경상북도 부지사(오른쪽 10번째), 김장호 구미시장(오른쪽 11번째)과 'BaaS 시험 실증 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 /KTR

이차전지 재활용으로 탄소중립 실현 전기차 배터리 안전·효율성 높인다

**KTR 구미에 배터리 실증센터 착공
구미 제1국가산단에 404억 투입
'배터리 생애전주기 서비스' 제공**

국내 최초 경상북도 구미에 들어서는 구독형 서비스를 통한 배터리 재사용 및 재제조 플랫폼 구축사업이 본격화됐다.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지난 1일 경북 구미 제1국가산단에 '배터리 활용성 증대를 위한 BaaS(Battery as a Service, 배터리구독서비스) 시험 실증 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KTR은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서 경북도, 구미시와 신청한 '배터리 활용성 증대를 위한 BaaS 실증 기반 구축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KTR은 구미 국가제1산업단지 내(수출대로 137)에 배터리 전주기 관리가 가능한 시험 실증 센터 기

공식을 갖게 됐다.

부지면적 약 2만4576㎡ 규모에 신축 5개 동과 부지 내 기존 건물을 활용한 시험동 등 총 6개 동으로 조성되는 시험 실증 센터는 국비 100억원을 포함해 총 404억원(지방비 150억원, KTR 154억원)이 투입된다.

실증 센터는 전기차 등에서 사용한 이차전지를 대상으로 ▲시험 상담 및 배터리 이력관리 ▲사용후 배터리 해체 및 1차 진단 ▲배터리의 전기적 안전 및 성능평가 ▲사용후 배터리의 진동 및 충격시험 ▲사용후 배터리 적용 현장 ESS(배터리저장장치) 시험 △EMC(전자파) 시험 등을 수행한다.

실증 센터는 국내 전기자동차 보유 대수 증가와 전기차 배터리 사용연한 도래 등으로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기반 시설이다.

내년 10월 실증센터가 준공되면 KTR은 전기차 등에서 사용한 배터리 진단, 등급 분류를 통해 ESS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차전

지 전주기 이력 추적 등 서비스를 통해 배터리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기존 이차전지 시험인증 인프라와 연계, 제조에서 사용후 배터리 활용까지 이차전지 라이프사이클 전주기에 걸쳐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KTR은 실증 센터에 기존 대구 달서구의 KTR ICT 시험소와 대구 북구의 KTR 대구경북시험소를 통합 운영, 실증센터를 구미산단 및 경북 지역 기업의 시험인증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김현철 KTR 원장은 "BaaS 시험 실증 센터는 배터리 활용성 증대를 위한 기술개발과 기업지원, 지역 인력양성 등 국내 이차전지 산업 발전을 돕는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특히 센터를 통해 이차전지 생애 전주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이차전지 시험인증기관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식품부 알뜰소비·수출지원까지 혁신 서비스 3종 선포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KADX)에 농식품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서비스 3종이 새로이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 중인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는 민간 및 공공이 보유한 농식품 데이터를 개방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다.

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서비스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올해 공동 개발과정을 거쳐 ▲알뜰한끼 ▲급식식재료플랫폼 ▲무역비서 총 3종을 출시한다.

'알뜰한끼'에서는 가격이 하락한 제철 농산물을 활용한 맞춤 요리법을 추천한다. 소매가격 데이터 기준으로 열흘 전 대비 알뜰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식재료와 관련 요리법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난 7월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일 충북 청주 강내면을 찾아 벼 작황을 살펴보고 있다. /농식품부

“쌀 저가판매 시장교란 집중 단속”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쌀 수급 점검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 시장격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일 쌀을 저가로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 강내면 벼 수확 현장을 방문해 올해 벼 작황과 수확기 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벼베기 일손을 거들었다.

현장에서 그는 쌀값 안정화 정책을 언급하고 "정부는 지난 10월15일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총 20만 톤을 시장격리하기로 발표했다"며 "공공비축미 중 산물벼 8만 톤 인수 및 피해벼 4만6000

톤(조곡) 전량 매입을 추진 중"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또한 쌀 저가판매 등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해, 수확기 쌀값을 안정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에서는 등숙기 고온·저일조 등의 영향으로 도정수율이 낮아, 생산성도 지난해보다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농업인단체장들은 정부가 마련한 수확기 쌀 수급대책을 통해 쌀값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기대했다. 특히 산지 쌀유통의 핵심주체인 농협이 벼 수매가 인상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치수 확대사업으로 홍수 대비 능력 높여”

Q 르포

영광 '불갑 저수지'

내달 준공식… 사업비 730억 투입
국내 최초 'PK 물넘이' 공법 도입

전라남도 영광군에는 전남에서 다섯 번째로 큰 '불갑 저수지'가 자리잡고 있다. 영광 주민들에게 '젓줄'이라 불리는 이 저수지는 지난 1926년에 준공돼, 10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한다. 관개면적은 3218ha에 달해 농어촌공사 영광지사 수해 면적의 약 52%를 차지하며, 불갑면을 비롯한 군서, 군남, 백수읍, 영광읍 등 7개 읍면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도착한 불갑 저수지에는 막바지 확장공사를 위해 각종 장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가 2018년부터 추진해온 '치수 능력 확대 사업'은 현재 약 98.2%의 공정률을 보이며 마무리 단계에 있었다. 총 사업비 730억7500만원이 투입된 이 저수지는 다음 달 준공식을 앞두고 있으며, 치수 능력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공사가 진행하는 마지막 대규모 사업장이다.

치수 능력 확대 사업은 기존 저수지에 물넘이를 설치해 홍수 등 수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대형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RUSA)'로 강릉지역의 동막댐과 장현댐 등 관개용수 댐 붕괴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자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이듬해 재해 대비 수리시설 설계 기준을 개정해, 유역면적이 2500



전남 영광군 '불갑저수지'에 국내 최초로 'PK 물넘이' 설계가 적용됐다. /김대환 기자

ha 이상이고 총 저수량이 550만㎥ 이상인 대규모 저수지에 대해 시설 개선을 통해 재해 능력을 보강하도록 했다.

불갑 저수지는 이번 치수 능력 확대 사업을 통해 물넘이 1개와 비상수문(2련) 1개를 설치해 치수능력을 확대했다. 특히, 국내에 처음 도입된 'PK(Piano Key) 물넘이'는 동일폭 기준 방류 능력과 경제성이 선형 물넘이에 비해 2~3.5배 가량 우수하다. 기존 직선형 물넘이는 초당 438㎥의 호우량을 처리할 수 있었지만, 신설된 PK 물넘이로 212㎥(12%), 수문(오리피스 레디얼게이트)로 1056㎥(63%)의 호우량을 분배해 효율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활한 유수 흐름을 위한 복단면 방류 수로를 계획하고 100년 빈도 홍수량을 적용해 주변 침수 피해를 저감했다"며 "물넘이와 비상수문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기상 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시 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하류부의 대규모 재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코트라, EU시장 공략 ESG 대응법 제시

‘EU ESG 통상정책 대응 가이드북’

코트라는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으로 4일 'EU(유럽연합) ESG 통상정책 대응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EU의 인권·환경 관련 규범들이 잇따라 발표되는 가운데, EU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들을 위한 종합 참고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에는 △우리기업이 주목해야 할 EU의 ESG 통상정책 △주요 체크포인트 △글로벌 기업의 대응사례 △K-ESG 가이드라인 내용을 담았다. 특히 '공시', '실사', '환경' 기준별 우리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규범을 3개씩 선정했다.

우선 '공시'에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택소노미(Taxonomy), 지속가능 금융공시제도(SFDR)를 꼽았다. '실사'에는 지난 7월 발효된 공급망실사지침(CSDDD)과 배터리규정, 산림전용방지법(EUDR)이, '환경'에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을 앞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지난 7월부터 발효된 에코디자인 규정(ESPR), '그린 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리 강화 지침'(일명 '그린 워싱방지법')이 수록됐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비즈니스 활동 전반에서 ESG 관련 UN, OECD 등 국제 요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K-ESG 가이드라인'을 소개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카타르 사막기후 적합한 농기자재 수출

농진청, 하사드푸드와 실증사업 협력

농촌진흥청이 우리 농업 기자재를 카타르 기후에 맞춰 수출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사막기후에 맞는 기자재 개발과 관련해, 카타르 국영기업인 하사드푸드와 협력해 실증사업을 벌이게 된다.

실증사업에서는 카타르에서 상용하는 필름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저온성

피복필름과 멀칭필름을 사용했을 때 온실 내부 및 토양온도 경감효과, 내구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주요 실증기술은 ▲토양온도를 경감시키는 저온성 멀칭필름 ▲내부 온도를 낮춰주는 온실 피복필름 ▲내서성 종자 등으로 구성했다. 하사드푸드 측은 자체 보유한 100평형 온실 4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대학로 아트포레스트 2관
2024.10.02 ~ OPENRUN

델타 보이즈

우리 노래,
지금도 하고 있어요

출연

서신우
정지호
장우진
정주호
최기원
강지훈
정영성
박주용
김호창
김도경
윤선근
박준성
김도후
김단율
장탁현
조제상
정휘욱
김소민

프로듀서 김건하 연출/각색 조성진 음악감독 강찬하 무대디자이너 정용현 조명디자이너 유은경 음향디자이너 Team Mr-J 조연출 장문희 의상/소품 장문희 총괄 콘텐츠 디자인 안재린 포토 윤준식
주최 파이어㈜ 기획/제작 파이어㈜ 제작감독 김단율 제작협력 (주)펠름초이스 홍보마케팅 이제이컴퍼니 예매처 인터파크 문의 02-764-9102 협찬 삼양식품

인터파크 평점
10.0점

17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 경쟁 부분 대상

21회 인디포럼
올해의 관객상



울산세계미래산업박람회, 첨단기술·새싹기업 미래 그린다

오는 6일~8일, 유에코서 열려
국내외 460개 기관·기업 참가
배터리·AI 등 5개 주제관 구성

울산시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유에코(UECO)에서 울산의 주력 산업과 신산업의 첨단 기술을 대대적으로 선보일 '울산세계미래산업박람회(WAVE)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세계미래산업박람회(WAVE, World Advanced Vision Expo)는 울산에서 시작된 혁신의 파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외 460개 기관·기업이 참가하며 주요 참여 기업으로는 삼성SDI, 현대자동차, SK에너지, 에쓰오일, 고려아연, LS MnM 등이 있다.

박람회는 ▲울산배터리테크플러스(U-BATTERY TECH+) ▲뉴런



울산시청.

/울산시

에이아이플러스(Neuron AI+) ▲지능형 이동수단 ▲미래 에너지 ▲새싹기업 등 총 5개 주제관으로 구성되며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AI) 기반 미래 산업, 자율주행 차량, 수소 에너지, 신생 스타트업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소개한다.

울산배터리테크플러스관은 이차전지 전주기 실험 및 기술을 전시할 예정이며 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핵심 기업인 삼성에스디아이를 비롯한 이차전지 소재 제련 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 LS MnM 등이 전시에 참가한다.

뉴런 에이아이플러스관은 울산시에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확장 가상 세계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AI를 활용한 지능형 공장 해법을 개발한 아임토리, 노바테크 등이 전시에 참여한다.

지능형 이동수단은 수소차, 전기차, 전기비행기, 지능형 선박 등을 전시한다. 특히 울산에 생산 공장을 둔 현대자동차는 수소차와 수소저장 이

차 최초로 전기 비행기 인증을 앞둔 토프 모빌리티에서는 전기비행기 실물을 전시할 예정이다.

미래 에너지관은 수소, 분산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와 석유화학 관련 전시품을 선보인다. 울산의 주요 대기업인 SK에너지와 에쓰오일뿐만 아니라,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을 통해 네덜란드 에너지 기업들의 수소 및 배터리 연구 성과 등도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새싹 기업관에서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및 근로복지공단 등의 새싹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기업을 홍보한다.

이와 함께 박람회 기간 국제 토론회, 수출 상담회, 투자 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세계적 사업과 산업 기반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울산=손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순창군

‘군민행복 통일열차’ 운행

순창군은 지난 1일 전북특별자치도 최초로 운행하는 '2024년 군민행복 통일열차'가 순창군민 369명을 태우고 임진강역으로 향했다.

이번 행사는 통일 염원을 담아 광주역을 출발 파주시 도라산 전망대를 오가는 여정으로, DMZ 일원을 둘러보며 분단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른 새벽부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열차에 올라 통일 관련 강연을 듣고, 최영일 군수는 열차 내 각客차를 순회하며 군민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창(전북)=양수영 기자

울진군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

울진군은 생물테러 발생을 대비한 초동대응요원의 현장 대응 능력 함양 및 유관 기관과 긴밀한 공조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2024년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을 오는 6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진군보건소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번 훈련에는 울진보건소, 울진경찰서, 울진소방서, 제5312부대, 울진군의료원, 울진군 안전재단과 총 6개 유관 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한다.

오는 6일에 진행될 훈련에는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 체계 교육 ▲생물테러 발생 시 초동 조치 대응 영상 ▲다중 탐지 키트 사용법 시연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포항시, 국내 첫 수소특화단지 지정

산업부, 수소연료전지산업 육성
블루밸리 산단 내 28만㎡ 규모 조성
2035년까지 수소기업 70개사 유치

포항시가 국내 최초의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수소연료전지산업을 국가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북 포항을 국내 최초의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수소특화단지는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28만 240㎡ 규모로 조성, 수소연료전지 생산·수출 거점으로서 글로벌 수소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특화단지에 지정된 포항시는 단기적으로 2028년까지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 사업으로 기업 지원

핵심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이후 2035년까지 수소연료전지 부품·소재 기업 육성과 전·후방 산업 밸류체인망 구축, 대·중·소 기술협력 지원으로 수출산업화에 필요한 역량을 결집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앵커기업을 비롯한 수소 기업 70개사를 유치해 소부장 연계 강소기업 20개사를 집중 육성하고, 연료전지 부품·소재 국산화율 100%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포항시는 이번 지정으로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예산과 규제개선 및 각종 인허가를 신속 지원받는 한편 수도권 기업의 이전 지원보조금 2% 가산, 산업 용지의 수의계약 등을 지원받으며, 수소 기업 유치 활동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

/포항(경북)=최지웅 기자 asdadx@



완도군은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참가해 이탈리아 수산물 업체와 수출 협약을 맺었다.

/완도군

완도군, 비엔나서 해양치유 우수성 알리

(오스트리아)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참가

전남 완도군이 지난 27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참가해 해양치유산업과 수산물 우수성을 알렸다.

신우철 완도군수와 군 관계자들은 수출박람회와 전남·경북 공동관 개관식 등에 참가했으며, 특히 신 군수는 광역·기초 지자체장으로써 유일하게 세계 한상, 현지 바이어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치유의 섬, 완도'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서는 치유가 세계적인 웰니스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완도만의 치유 자원을 활용해 국내 최초로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

었다.

완도군의 수산물 수출 업체인 ㈜해청정, (유)하나물산, 완도바명어조합법인, 완도다 어업회사법인(주) 등은 수출박람회에서 완도군 홍보관을 운영, 밥에 넣는 톳과 전복 차우더, 전복 꼬치 등을 선보였다.

아울러 66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해 미국, 독일, 이탈리아, 루마니아, 중국, 대만 등 바이어와 14건, 1080만 불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전라남도 홍보관에 참가한 업체를 포함하여 완도군의 총 6개 업체는 미국 라티노&한인협회 이사이자 kylobal Inc. 공보미 대표와 350만 불 상당의 3자 수출 협약을 체결하며, 완도군 수산물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입지를 다졌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전북도-한전, 국가 기간전력망 건설 협력

재생에너지 발전 접속제한 우려 해소

한국전력과 전북특별자치도가 국가 기간전력망 적기 건설에 협력,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발전 접속제한 우려 해소에 나선다.

한전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앙협력본부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와 전력망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호남지역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국가 기간전력망 적기 건설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실무협의체를 구성, 정기 회의를 통해 협력과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2031년 말까지 약 42GW(기가와트) 규모로 확대될 전망인데, 이외에 추가로



한전 김동철 사장(왼쪽)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일 여의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앙협력본부에서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와 전력망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전

발전설비가 진입할 경우 전국적인 계통 불안정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고 출력제한에 의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계통포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간전력망의 적기 건설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으로, 현재 발의된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부산시, '물류대상 정부포상' 국무총리 표창

물류산업 고도화·산업 경쟁력 기여

부산시는 최근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2024년 제32회 한국물류대상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물류의 날(11월1일)을 기념해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를 발굴, 포상하고 있다.

시는 물류산업 고도화와 세계적 위상 제고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이번 상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한 시의 주요 활동 사항은 ▲국토부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2년 연속 선정 추진 ▲지능형 무인자동차 스마트물류 시스템 구축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 및 국제철도기술산업전 동시 개최 등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산청군

도로정비 종합평가 '최우수'

산청군은 경남도가 진행한 2024년 도로정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춘·추계 도로정비 결과를 합산해 이뤄졌다.

2021년 우수기관 선정 이후 3년 만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산청군은 자체 계획 수립 등 평소 철저한 준비로 평가를 대비했다. 특히 국비 10억원을 확보해 국도3호선 산청읍 구간 방음벽을 투명방음벽으로 교체해 교통환경을 개선했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신세계, 재무통·영업통 CEO 교체… 식품 수익성 개선 속도

푸드·L&B, 수익성 개선 집중
신세계푸드, 내실 다지기 위한 개편
신세계L&B, 와인 중심 포트폴리오

신세계그룹이 식품 계열사 신세계푸드와 신세계L&B의 수장을 교체하면서 수익성 제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그룹은 지난달 30일 정기인사를 통해 강승협 신세계프라퍼티 지원본부장을 신세계푸드 대표이사로, 마기환 나라셀라 영업마케팅총괄 전무이사를 신세계L&B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수익성 제고 과제가 있는 두 곳의 리더를 교체해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신세계푸드의 부진을 떨쳐낼 구원투수는 강승협 신임대표다. 강 신임대표는 1995년 신세계에 입사해 2015년 신세계그룹 전략실 감사팀장, 2016년 신세계건설 지원 담당 상무보, 2018년 이마트 관리담당 상무, 2019년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를 거쳤다. 2020년에는 이마트 지원본부장 겸 재무담당 상무, 2022년 전무로 승진해 이마트 지원본부장과 지마켓 지원본부장을 겸직했다. 지난해에는 스타필드 개발·운영사인 신세계프라퍼티에서 지원본부장과 재무담당을 겸임했다.

강 신임대표는 수익과 성과 위주의 운영으로 내실을 다질 것으로 점쳐진다.

신세계푸드는 올해 2분기 연결기준



강승협 신세계푸드 대표이사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0.8% 증가한 97억원을 달성했다. 2018년 이후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지만, 계열사인 이마트에 가점간편식(HMR) 상품과 스타벅스로 베이커리를 납품하는 물량이 상당수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질수록 성장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익 다각화가 절실하다.

신세계푸드는 노브랜드버거와 노브랜드 피자, 오슬로, 베키아에누보, 데블스도어 등의 외식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외식브랜드도 수익성 위주로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지난 1월 레스토랑 '보노보노'를 브라운F&B에 매각했으며 지난 9월 그룹 내 '미운 오리'로 꼽히던 음료 브랜드 '스무디킹'의 국내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스무디킹은 2003년 국내 론칭 이후 한번도 흑자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신임대표는 비효율 브랜드를 정리하는 기조를 이어갈 것으



마기환 신세계L&B 대표이사

로 보인다.

대안육 사업에 대한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신세계푸드는 일찌감치 대안육을 차세대 먹거리로 지정하고 관련 포트폴리오를 확대해왔다. 앞서 2021년 대안육 브랜드 '베러미트'를 론칭했으며 지난해에는 식물성 대안식 브랜드 '유아왓유잇'을 선보였다.

하지만, 국내 대안육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탓에 성장 속도도 더딘 상황이다. 대안육 사업의 낮은 수익성이 문제로 지적된 만큼 대안육 사업 수익성 개선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신세계L&B 수장으로는 마기환 나라셀라 영업마케팅총괄 전무이사를 영입했다. 마 신임대표는 2000년 이마트에 경력직으로 입사해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을 거쳤으며 2013년 신세계L&B에 합류해 영업팀장과 영업담당 상무를 지냈다. 지난해 나라셀라가 와인 수입사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나라셀라에 잠시 몸담았다가 다시 '친정'에 복귀하는 것이다.

마기환 신임대표는 신세계L&B 내부 사정에 밝은 인물로 이마트PB브랜드 와인 '도스코파스'를 기획한 인물이기도 하다.

신세계L&B는 올해 제주소주를 정리하고 수익성이 좋지 않은 '와인앤모어'의 매장 4곳을 폐점했다. 비효율 점포와 사업부문을 정리하고 주력 사업에 집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세계L&B는 당장 실적 개선이 과제다. 신세계L&B는 매출이 2022년 2064억원에서 지난해 1806억원으로 줄었고, 영업이익은 116억원에서 7억원으로 급감했다. 최근 몇년간 주류 트렌드가 와인에서 위스키, 하이볼로 이동하면서 와인 수요가 급감한 탓이다.

신세계L&B가 소주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와인 사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만큼 마 신임대표의 풍부한 유통 경험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신세계그룹이 식품 사업에서 제주소주와 스무디킹 등 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철수하고, 이번 인사에서 잔뼈가 굵은 '신세계멘'들을 앞세운 것을 보면 그룹의 변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며 "사업 효율화와 수익성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BBQ 빌리지 청계광장점 '치킨·위스키 페어링'

BBQ가 치킨과 위스키의 새로운 조합을 즐길 수 있는 프로모션을 전개해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은 오는 14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BBQ 빌리지 청계광장점'에서 치킨과 와일드 터키 위스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BBQ는 이번 행사를 위해 버번 위스키인 '와일드 터키' '러셀 리저브'를 비롯한 아페롤 스피릿과 페어링한 BBQ 치킨 세트 메뉴와 BBQ 스파클링 음료 '레몬보이'와 위스키를 조합한 하이볼을 선보였다.

/신원선 기자

배스킨라빈스 '치토스 밀크셰이크' 출시

SPC 배스킨라빈스는 지난달 31일 실험과 창조의 공간 '워크샵 바이 배스킨라빈스(이하 워크샵)' 매장에서 11월 이달의 맛 '치토스 밀크셰이크 아이스크림' 언탭(Un-Tub)쇼 행사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언탭쇼란 매달 새롭게 출시되는 이달의 맛 아이스크림을 최초로 공개하고 맛볼 수 있는 고객 행사다.

배스킨라빈스는 사전 응모 및 초청 인원을 포함한 100여 명의 현장 방문객들에게 켈시코의 대표 스낵 '치토스'와 협업 개발한 11월 이달의 맛 '치토스 밀크셰이크 아이스크림'을 처음으로 선보이고, 브랜드 스토리텔러 '닥터'가 직접 제품의 특징점을 소개했다.

/신원선 기자

이마트24 "50억초밥왕 '감태계란마끼' 맛보세요"

'흑백요리사' 출연 셰프 협업

오는 15일까지 20% 할인, 3900원
김도윤 셰프, 한식 먹거리 3종 선보

이마트24가 흑백요리사 셰프들과 협업한 상품을 내놓으며 '흑백요리사' 열풍에 합류한다.

이마트24는 이달 흑백요리사 출연 셰프인 '50억초밥왕' 이경재 셰프와 협업한 '감태계란마끼'를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감태계란마끼는 달콤한 계란구이와



'감태계란마끼'

오복채(무장아찌), 오이채를 토핑한 마끼에 감태를 한 번 더 감싸 향긋한 맛을 더했다. '마끼(まき)'는 '김으로 돌돌 말은'이라는 뜻으로, 일본식 김밥을 일컫는다.

해당 상품은 '오늘의 초밥'을 운영하는 이경재 셰프가

상품 기획단계부터 참여해 상품을 직접 맛보며 자문 역할을 담당했다. 이마트24는 많은 고객들이 감태계란마끼를 즐길 수 있도록 오는 15일까지 20% 할인된 가격인 3900원에 제공한다.

이마트24는 흑백요리사의 또 다른 출연자인 김도윤 셰프와 협업한 상품도 이달중 선보인다. 김도윤 셰프는 미쉐린 1스타 한식다이닝 '윤서울'의 셰프로, 한식을 접목한 ▲오색나물비빔밥 ▲참치마요취나물김밥 ▲참새끼나물김밥 등 먹거리 3종을 선보인다.

상품 판매금액의 일부는 사회단체에 기부될 예정이다.

해당 콜라보 상품 구입 시, 추첨을 통해 김도윤 셰프의 면요리 전문점인 '면서울'의 3만 원 식사권(10매), 애플 에어팟 맥스(AirPods Max), 이마트24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이마트24는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이복요리 전문점 '리복방'의 최지형 셰프와도 협업해 12월 중 상품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쿠팡, 인기 뷰티브랜드 최대 70% 할인

오늘부터 24일까지 '메가뷰티쇼'

쿠팡이 4일부터 24일까지 인기 뷰티 브랜드 제품을 특별한 혜택과 함께 선보이는 '메가뷰티쇼'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메가뷰티쇼는 쿠팡이 1년에 세 번 진행하는 대규모 뷰티 축제다. 국내외 유명 뷰티 브랜드들의 인기 제품을 파격적인 할인가에 만날 수 있는 행사다.

닥터지, 아이오펜, 마녀공장, 셀퓨전씨, 메디필, 쉘37도, 아벤스, 브이티(VT), 투쿨포스쿨 등 국내외 대표 뷰티 브랜드 9개사가 참여해 최대 70% 할인

된 가격에 제품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에는 각 브랜드의 스테디 셀러와 신제품을 모았다.

대표적으로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시카 수딩 크림 듀오 기획세트 ▲셀퓨전씨 레이저 유보이 썬스크린 ▲아벤스 오페르말 미스트 ▲투쿨포스쿨 바이로맹 웨이딩 엑스퍼트 ▲브이티 리들샷 700 등이 있다.

쿠팡은 다양한 특별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혜택은 반값! 예쁨은 두배 1+1 득템찬스'에서는 크림, 쿠션, 앰플, 아이라이너 등 인기 제품을 1+1로 구매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최병오, 中 패션 시장 공략 광폭 행보

〈패션그룹형지 회장〉

지난달 28일 中 항주 방문 시장조사

패션그룹형지는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 패션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패션그룹형지에 따르면 최병오 회장은 지난 10월 28일 중국 항주에 방문해 시장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29일에는 중국 절강성 이우시장을 방문, 제품 공급처 관련 상담을 진행한 뒤 이상조 이우한국인상회 회장을 만나 패션그룹형지와 이우한국인상회 간의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맺었다.

이우한국인상회는 중국 절강성 이우시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민과 기업인

들로 구성된 단체로, 교민들의 권익 보호와 상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우 국제소상공인시장에 패션 잡화가 강세인 지역인 만큼, 패션 잡화 및 사은품 소싱을 위한 최적의 시장으로 보고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는 게 패션그룹형지 측 설명이다.

향후에도 중국 방문을 통해 현지 경영을 이어갈 예정이라는 게 패션그룹형지 측 설명이다. 최 회장은 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 중국 광둥성 둥관시에서 중국복장협회 주최로 열리는 '2024 글로벌 의류 콘퍼런스(GAC)'에 참관할 계획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3일 오전, 서울시 양천구 현대백화점 목동점 지하 1층 '더 컬렉션 아트 페어' 전시장에서 고객들이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목동점 '더 컬렉션 아트페어'

현대백화점은 오는 7일까지 서울 양천구 목동점 지하 1층에서 미술 경매 회사 아르페케이가 주관하는 '더 컬렉션 아트 페어'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김창열, 이우환 등 세계적인 블루칩 아티스트를 비롯해 방수현, 이수진 등 경기문화재단이 선정한 18인의 영아티스트 등 40여명의 작가의 작품 총 100여점을 만나볼 수 있다.

/최빛나 기자

간암 신약부터 미백 화장품까지 HLB그룹, 헬스케어 사업 확장

‘리보세라닙’ 신약허가 신청
적응증·후속 파이프라인 확대

‘제노포커스’ 인수… 경영권 확보
미백 전문 브랜드 ‘미인실록’ 공개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전문회사 HLB그룹이 제약·바이오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헬스케어 산업에서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HLB그룹은 올해 표적항암제 후보 물질 ‘리보세라닙’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 왔다.

HLB그룹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테라퓨틱스와 항서제약은 지난 2023년 5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간암 1차 치료제로 개발한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한 신약허가신청서(NDA)를 제출했다. 이후 올해 5월 미국 FDA로부터 보완요구서한(CRL)을 받았고 FDA 승인 제도를 준비해 왔다.

이와 관련 HLB그룹은 지난 9월 20일(현지 시간) 신약허가 재승인 신청을 완료해 이르면 이달 안에 승인 허가 여부를 받게 된다. 미국 FDA는 신약허가 재심사를 클래스 1과 2로 구분하는데, 각각 최대 2개월, 6개월의 심사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HLB그룹은 리보세라닙을 위암, 선양낭성암, 대장암, 반려견고형암 등으로 적응증도 확대하고 있다.

또 HLB그룹은 리보세라닙 후속 파이프라인에도 역량을 쏟는 중이다. HLB그룹의 신약개발 전문 계열사인 HLB테라퓨틱스는 안구건조증, 신경영양성각각염 등 안과질환 치료제, 희귀질환인 교모세포종 치료제 등에 주력하고 있다. 이 가운데 HLB테라퓨틱스



지난 5월 17일 유튜브 HLB 공식 계정에서 진양곤 HLB그룹 회장이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에 대한 미국 FDA의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HLB그룹



HLB생활건강은 ‘미인실록’ 브랜드를 공개하며 첫 신제품으로 크림, 앰플, 패치 등 3종을 선보였다. /HLB생활건강

가 교모세포종 치료제로 개발 중인 ‘OKN-007’의 경우, 최근 루게릭병 치료제 개발 가능성도 입증했다.

이처럼 기존 HLB그룹이 다양한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에서 연구개발 결과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HLB그룹은 올해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에도 지속 투자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LB, HLB파나진, HLB생명과학, HLB테라퓨틱스 등 7개 HLB그룹사는

지난달 28일 ‘제노포커스’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제노포커스 지분 26.48%를 인수하고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번 인수는 HLB그룹 계열사들이 인수와 증자로 250억원을, 투자자 그룹이 전환사채(CB)로 550억원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제노포커스는 맞춤형 효소 및 바이오헬스케어 소재를 개발, 생산하는 기업이다. 특히 제노포커스는 젓당 분해 효소, 과산화수소 분해 효소, 단백질 인산화효소, 바이오 레티놀, 피부 인지질을 구성하는 스펙트럼 화합물, 비타민 K2 등을 주요 제품으로 하는 만큼 HLB그룹 또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힘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실제로 HLB그룹은 지난달 HLB생활건강을 통해 프리미엄 미백 전문 브랜드 ‘미인실록’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브랜드는 전통 발효주인 막걸리에서 얻은 술지게미를 활용한 ‘쌀지게미’를 원료로 하는 스킨케어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HLB그룹이 의약품 개발 경험으로 독자 구축한 ‘자가 미세 유화 약물 전달 시스템’ 공법을 화장품에서 구현한 것도 특징이다.

HLB그룹은 앞서 지난 9월에는 카이스트 창업 기업 ‘뉴로토프’도 인수했다. 뉴로토프와 협업해 파킨슨병, 근긴장이상증 등과 같은 난치성 뇌질환 치료제 분야에서 신약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HLB그룹 측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HLB그룹은 올해 상반기 항체 항암 신약개발기업 ‘아테온바이오’, 뇌질환 치료제 개발 바이오벤처 ‘뉴로벤티’ 등에도 각각 1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 바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위메이드플레이, ‘애니팡 머지’ 업데이트

추수감사절 콘셉트·콘텐츠 선배

위메이드 자회사 위메이드플레이가 모바일게임 ‘애니팡 머지’의 추수 감사절 업데이트를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애니팡 머지’는 위메이드플레이가 애니팡 지식재산권(IP)을 처음으로 활용해 선보인 게임으로, 퍼즐이나 아이템을 결합해 더 높은 단계의 아이템을 만드는 머지(결합) 게임 장르 특징을 담고 있다.

위메이드플레이에 따르면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가을 농가를 배경으로 추수에 나선 애니팡 프렌즈 캐릭터 콘셉트의 디자인을 선보인다.

특히 색감과 그래픽 효과를 활용해 이용자들이 재료를 결합하는 과정을 더욱 직관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을 적용했다는 게 위메이드플레이 측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롯데리조트 부여, 지역 특산물 ‘밤’ 행사

‘테이스트 오브 오팀’ 기획전 등 운영

롯데호텔앤리조트의 ‘롯데리조트 부여’가 지역 특산물인 밤을 활용한 특별 행사를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가장 먼저, 롯데리조트 부여는 ‘테이스트 오브 오팀’ 기획전을 열어 리조트 방문객을 대상으로 부여 밤을 홍보한다. 리조트 1층에 마련된 홍보 부스에서 14종에 달하는 밤의 탄생 이야기를 소개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직접 만든 밤 관련 상품도 선보인다.

특히 로비에 비치된 쿠팡코드를 통해 롯데리조트와 부여군 농식품 인증 브랜드인 ‘굿뜨레’가 공동 진행하는 투숙객 전용 온라인 기획전도 둘러볼 수 있다. 투숙객 전용 상품 페이지를 통해 할인가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롯데호텔앤리조트 측 설명이다.

밤을 활용한 체험 행사도 진행한다. 매주 주말에는 롯데웰푸드 과자를 이

를 적용했다는 게 위메이드플레이 측 설명이다.

아울러, 위메이드플레이는 업데이트를 기념해 특별 이벤트 콘텐츠도 제공한다. 추수 감사절 관련 아이템을 모아 퍼즐을 완성하는 ‘풍요로운 추수 감사절’, 특정 층이나 레벨을 완료하면 보상을 받는 ‘추수 감사 타워’ 콘텐츠가 이달 동안 진행된다.

위메이드플레이 손상아 프로젝트매니저(PM)는 “게임 서비스, 운영 외에도 이용자들의 터치앤드래그 방식 플레이를 고려해 5000개가 넘는 머지(결합) 레시피를 즐길 디자인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동화 풍의 이야기에 더해질 국내외의 시즌별 특징을 담은 테마, 디자인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롯데리조트 부여 전경 사진. /롯데호텔앤리조트

용해 과자집을 만드는 ‘알밤 과자집 만들기 클래스’가 열린다. 이 외에도 밤 티라미수를 만들어볼 수 있는 ‘키즈 쿠키 클래스’도 총 2회 운영된다.

객실 패키지 구매 고객을 위한 상품도 마련됐다. 롯데리조트 부여는 해피아쿠아 객실 패키지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부여 알밤 시리즈 7종’ 상품을 선착순 100실 한정으로 제공한다. 롯데, 말랑카우, 찰떡파이, 몽쉘 등 밤을 활용한 롯데웰푸드 제과 상품이 포함됐다.

/안재선 기자

온라인 의류 구매 피해신고 ‘연말 집중’

11월·12월, 1224건… 월평균比 23.4%↑
온라인쇼핑 관련 이용 추세 ‘주춤’
패션업체, 오프라인 매장·팝업 집중

온라인 의류 구매 관련 피해 신고 건수가 연말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쇼핑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 전자상거래 중심의 의류 쇼핑 흐름에 변동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의류 구매에 대한 소비자 피해 신고가 연말에 집중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소비 피해 유형은 청약철회 거부 및 품질 문제다. 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청약철회 관련 피해 신고 건수가 총 50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품 품질 불만 관련 신고 건수가 380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청약철회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산

물건을 취소하거나 반품하고자 할 때,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환불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피해 신고는 패션업체들의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인 11월과 12월에 집중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월평균 피해 신고 건수는 992건으로 집계됐지만, 11월과 12월의 평균 신고 건수는 1224건으로 월평균보다 23.4%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의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쇼핑 이용 흐름 역시 둔화되고 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온라인쇼핑 동향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중 패션 부문 매출은 지난 2023년 9월 기준 4만2758억원에서 2024년 9월 4만1391억원으로 소폭이지만 감소했다.

이처럼 온라인 쇼핑 관련 이용 추세가 주춤해지자, 업체들이 오프라인 및 팝업에 집중하는 측면도 있다는 게 업

계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 영향과 함께 중국 저가 쇼핑몰이 들어서면서 온라인 쇼핑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무너진 측면도 있다”며 “업체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늘리거나, 팝업을 진행하는 것도 이에 기인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 최근 영원아웃도어의 브랜드 ‘노스페이스’는 신규 제품군인 ‘눅시 재킷’을 출시하고 이를 기념해 지난달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 ‘눅시 24’팝업스토어를 열었다. 이랜드월드의 제조유통 일괄 브랜드 ‘스파오’ 역시 서울 성수동에 ‘푸과 랜드’ 팝업스토어를 새롭게 오픈한다. 라이프스타일 기업 더네이처홀딩스의 ‘네셔널 지오그래픽 어패럴’ 역시 잠실 롯데타워 1층에서 팝업스토어를 열고 남자 아이돌 그룹 라이즈와 함께 협업한 제품을 선보인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프리메라 “피부 고민, 깨끗하게 씻어내요”

‘마일드 앤 퍼펙트’ 제품군 3종 재단장

아모레퍼시픽은 고효능 저자극 브랜드 프리메라에서 ‘마일드 앤 퍼펙트 제품군’ 3종을 재단장해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마일드 앤 퍼펙트 클렌징 오일 투 폼’과 ‘마일드 앤 퍼펙트 페이스 필링’은 프리메라 대표 제품이다. ‘마일드 앤 퍼펙트 클렌징 오일 투 폼’의 경우 세정력이 강화되고 오일로 인한 트러블 발생까지 개선해 모든 피부 유형의 고객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마일드 앤 퍼펙트 페이스 필링’은 젤 형태의 제품인데, 묵은 각질만 제거해 마치 수분팩과 같은 부드러운 사용감을 갖췄다.

신제품 ‘마일드 앤 퍼펙트 포어 필링 패드’는 순면 고밀착 패드 제품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위에 부착하거나 피부 결을 따라 닦아내는 용도로 쓴다.



프리메라가 피부 모공과 각질을 손쉽게 관리하기 위한 고효능 제품 3종을 선보인다.

/아모레퍼시픽

각질과 피지를 제거하고, 화이트헤드와 블랙헤드 생성을 예방해 모공 크기를 줄여주는 등 피부 결을 관리해 준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신제품 3종 모두 피부 자극 테스트도 완료해 민감해지고 약해진 피부에 적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제품들은 전국 CJ올리브영 매장과 온라인몰,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 아모레몰 등 주요 e커머스 채널에서 구매 가능하다.

/이청하 기자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한국산업銀-토지주택公,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맞손
한국산업은행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입주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왼쪽)이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



현대면세점, '한국물류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현대면세점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2024 물류의 날 기념식'에서 '제32회 한국물류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박장서 현대면세점 대표이사(오른쪽)와 국토교통부 백원국 차관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현대면세점



윤병은 NH투자증권 사장, 농가 일손돕기 '구슬땀'

NH투자증권이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2리 농가 지역을 방문해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3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윤병은 NH투자증권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50여명은 지난 1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2리 농가 지역을 방문해 고추대 철거 및 마을 환경미화 작업을 지원했다. /NH투자증권



홈앤쇼핑, 강서구 일대서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홈앤쇼핑이 서울 강서구 등촌초등학교에서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3일 홈앤쇼핑에 따르면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한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의 낡은 벽을 다채롭고 밝은 그림으로 꾸며 주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했다. /홈앤쇼핑

아산나눔재단

‘워크인 스타트업’ 토크콘서트

아산나눔재단은 11월 한 달 간 전국 5개 대학에서 ‘워크인 스타트업’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아산나눔재단의 ‘워크인 스타트업’ 캠페인은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며 경력을 쌓아온 현직자들의 경험담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와 그 안에서 커리어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국내 5개 지역 학생들과 스타트업 현직자들의 접점을 넓혀 지역 내 창업 문화와 기업가정신을 확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청하 기자 mlee236@

현대차그룹, ‘10m 행군’ 1000만뷰 돌파

**좋아요 20만개, 댓글 2100개
“신기술 활용 지원 캠페인 지속”**

군 병원에서 치료 중인 부상 군인을 응원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로보틱스 기술 캠페인 ‘10m 행군’ 영상이 잔잔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보행 재활 로봇 ‘엑스블 맥스’로 부상 군인의 재활을 돕는 캠페인 영상 ‘10m 행군’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지 한 달 만에 조회수 1000만회를 넘었다고 3일 밝혔다. 이 영상은 지난달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게시됐다.

현대차그룹은 R&D본부 로보틱스랩에서 개발한 엑스블 맥스를 지원받은 부상 군인들이 재활 훈련을 하는 모습 등을 영상에 담았다.

한 달 새 영상에는 총 20만개 이상



지난달 24일 부상 군인들과 의료진을 위한 간식차 전달 모습

/현대차그룹

의 좋아요와 210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초기 목표로 한 ‘좋아요·댓글 합산 1만개’는 열흘 만에 달성됐다.

영상을 본 한 시청자는 “(부상 군인이) 로봇을 착용하고 걸음을 내딛는 순간에서 눈물이 났다”며 “첨단 기술이 이렇게 사용된다 생각하니 뿌

듯하고, 기술을 개발하신분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그룹의 신 기술을 활용해 국가에 헌신하는 공익 봉사자들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전자, 장애인 프레임 러너와 마라톤 도전

“삶의 질 향상 위한 지원 이어갈 것”

LG전자는 임직원들이 3일 열린 ‘2024 JTBC 서울 마라톤’에서 뇌병변 장애인 프레임 러너들과 함께 뛰는 페이스 메이커 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프레임 러닝은 페달이 없는 프레임을 이용해 달리는 자전거 스포츠다. 전 연령대 장애인을 위한 운동으로 주목 받아 지난해 세계장애인육상선수권 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이는 지난 6월 LG전자가 서울시 및 서울시체육회와 맺은 ‘장애인의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MOU)’의 일환이다. LG전자는 올해 초 진행된 ‘서울시 릴레이 기부 챌린지 런’ 캠페인으로



LG전자는 임직원들이 3일 열린 ‘2024 JTBC 서울 마라톤’에서 뇌병변 장애인 프레임 러너들과 함께 뛰는 페이스 메이커 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LG전자

조성된 기부금을 활용해 뇌병변 장애인들의 마라톤 훈련 및 대회 참여를 지원했다.

이번 활동은 LG전자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다. 지난 9월부터 임직원 봉사자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장애인 참가자들과 짝지어

유대감을 쌓고 목표 거리를 완주하도록 함께 훈련했다.

윤대식 LG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이어가며 장애인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hyem@

하반기 인재모집

현대차그룹, ‘협력사 채용박람회’ 개최

9개 그룹사 650개 협력사 참여

현대자동차그룹이 협력사와 함께 ‘2024 현대자동차그룹 협력사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현대차그룹 협력사 채용박람회는 대기업이 지원하는 국내 최초 협력사 채용박람회로 채용 상담 등을 통해 실제 채용까지 연결되

도록 현대차그룹이 행사 기획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재정적인 지원 등을 전담하는 국내 대표 동반성장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이번 채용박람회는 온라인 방식으로 11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온라인 채용박람회 종료 후 해당 홈페이지는 수시채용관으로 변경, 협력사 인력 공백 최소를 위해 연중 상

시 운영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한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트랜시스, 현대로템, 현대오트모터 등 9개 그룹사 관련 총 650여개의 협력사가 참여한다.

채용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온라인 채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회원가입을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협력사별 채용 공고를 확인 후 관심 있는 기업에 지원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양성운 기자

이연에프엔씨, 대규모 공개채용

종합식품기업 이연에프엔씨가 2024년도 하반기 대규모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연에프엔씨는 기업의 성장세를 더욱 확고히 하고 국내 한식 프

랜차이즈 시장을 리드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 서울 소재 본사 영업본부(운영팀/이커머스팀/마케팅), 전략기획실(정보 분석)과 오송 소재 스마트팩토리 관

리팀(인사·총무파트/공무파트/재파트)에서 신입 및 경력 직원을 공개 채용한다

이번 하반기 공개 채용은 17일까지 진행하며, 관련 경력자 또는 2025년 2월 졸업 예정자를 포함해 초대졸 이상 지원 가능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교원라이프

시니어 멤버십 강화

교원라이프가 현대그린푸드와 손잡고 시니어 맞춤형 멤버십 혜택을 강화한다.

3일 교원라이프에 따르면 ‘케어푸드(Care Food)’에 대한 시니어 세대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해 현대그린푸드와 제휴를 맺고 건강식 브랜드 ‘그리팅’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제휴로 교원라이프 회원들은 그리팅 회원가입 시 ‘건강마켓’과 ‘식단관리’에서 4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시니어 식단’ 1주 이상 구매 시 5000원을 할인해 주는 쿠폰을 제공받는다. 이 쿠폰은 교원라이프 회원 전용으로 교원라이프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회원 인증을 하면 자동으로 발급한다.

/김승호 기자 bada@

한국수력원자력

‘아인슈타인 클래스’ 모집

한국수력원자력은 ‘아인슈타인 클래스’ 멘토(50명)와 멘티(300명)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아인슈타인클래스는 대학생멘토가 원전 주변지역 청소년의 학습과 진로 탐색을 돕는 한수원의 대표 지역상생 교육 프로그램이다.

한수원은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를 선발하며, 멘티는 원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초중학생이 대상이다. 선발되는 멘토들은 겨울방학 약 3주간 발전소 주변지역에 배치돼 멘티들의 학습지도 등 활동을 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멘토는 11월 17일까지 한수원 또는 더나은세상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멘티는 22일까지 각 소속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세종=한홍수 기자 hys@

인사

◆**KG그룹** <KG스틸> ◇부사장 △김성일 ◇상무(보) △김형도 △배선우 <KG모빌리티> ◇전무이사 △권교원 △권용일 ◇상무(보) △김재환 △이희정 △최진안 <KG케미칼> ◇상무(보) △전영진 <KG이니시스> ◇상무(보) △명재현 △홍형기 ◇이사대우 △김현석 <KG에코솔루션> ◇상무이사 △홍천표 <KG에듀원> ◇이사대우 △임근성 △김지하 <KG F&B> ◇상무(보) △김종혜 ◇이사대우 △주민욱 <KG GNS> ◇이사대우 △임강택 △윤석호 <KG ICT> ◇이사대우 △강준석 △윤준섭 <KG 제로인> ◇상무(보) △송창섭 ◇이사대우 △정해린 <이데일리> ◇상무(보) △이정훈 △류성 △장재호 <이데일리M> ◇상무(보) △김병규 <KG캐피탈> ◇대표이사 △이석진

부음

▲**서상홍**(전 헌법재판소사무처장·향년 75세)씨 별세, 박순숙씨 남편상, 서아람·서미루씨 부친상, 구민경씨 시부상, 이희천씨 장인상 = 2일 오전 6시 30분,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5일. 02-2072-2010

약정상 도산해제조항의 효력



박 규 익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상인 사이에 작성되는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이행능력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다른 계약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계약해제조항이 삽입된다. 이 때 이행능력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로서 주로 포함되는 문구가 ‘계약당사자의 재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및 ‘계약당사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나 파산선고신청이 있는 경우’다. 특히 회생절차개시신청이나 파산선고신청을 진행했다는 것은 이미 계약당사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방으로서는 계약상 형성되는 채권, 채무관계를 성실히 이행하리라는 기대를 갖기 어렵기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이같은 조항을 삽입해두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당사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파산선고신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약정에 의해 그 상대방이 해제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일까? 그건 아니다. ▲계약이 아직

전부 이행되지 않은 ‘미이행 쌍무계약’이고, ▲계약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아무리 약정상 해제권에 대한 조항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계약 상대방은 해제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는 기본적으로 회생절차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해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다. 회생절차는 채권자들이 경쟁적으로 강제집행에 나서는 것을 중지시키고 채무자로 하여금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를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변제하도록 하는 절차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에 의해 선임된 관리인(주로 대표이사)에게 미이행쌍무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되고(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관리인은 회생을 위해 영업의 계속에 필요한 미이행쌍무계약에 대해선 계약 이행을 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은 계약상 도산해제조항이 있더라도 해제권을 인정받을 수 없고,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물론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회생절차에서 전액 변제받을 수 있다.

다만 예외는 있다. 법원은 회생절차 진행 중에 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이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거나, 회생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가 허용된다고 판시했다(서울고등법원 2023. 1. 13. 선고 2021나2024972판결). 예를 들어 계약상 약정된 대금의 수준이나 그 내용이 계약 상대방에게 매우 불리하고,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그 시기까지 공급한 물품에 대한 대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의 이행을 강요할 경우 계약 상대방 또한 재정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거나, 회생채무자의 영업에 필요하지 않은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이 이행을 택하는 경우라면 계약 상대방은 이러한 사실을 들어 예외적으로 도산해제조항의 효력이 발생함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채무자회생법이 적용되는 회생절차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이 지니고 있는 일반 민사적 상식과 다른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채무자의 갑작스러운 도산절차 진행으로부터 계약상 발생하는 채권을 보호하려면 각종 담보권 설정이나 계약상 권리, 의무를 규정함에 있어 계약서 작성시부터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바른

성장률 바닥, 길바닥엔 폐업



김지수첩

김 연 세
(정책사회부)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이 곳곳에서 흘러나온 지 꽤 됐다. 코로나19가 엔데믹화로 접어들면서 빠르게 늘어난 소비는 말 그대로 ‘반짝’ 특수에 불과했다. 건설 경기, 자영업 경기는 지금 바닥이다. 마찬가지로, 당시 무섭게 치솟던 코스피 지수는 본연의 약세장을 되찾았다.

주식이든 실물 경제든 바닥을 치면 반등하는 게 세상이치인데 어둠의 터널이 생각보다 훨씬 길어 보인다.

우리나라 경제는 올해 2분기에 역성장(-0.2%)하면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꼴찌를 기록했다. G20 협의체 평균 +0.7%와 비교해

매우 초라한 성적이다. 미국·중국·일본의 GDP도 모두 평균과 같이 직전분기 대비 0.7%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도 +0.5%에 달하며 한국 수치를 훌쩍 상회했다.

한국은 3분기에도 GDP가 고작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2분기의 마이너스를 감안하면 제자리도 못 찾은 것이다. 한국은행이 당초 제시한 예측치 +0.5%는 부끄러울 정도로 빗나갔다. 기획재정부 역시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한 바 있다. 민간소비 등의 부진한 내수를 수출이 상쇄하지도 못했다. 이에 대해 이창용 한은총재는 지난달 하순 국감장에서 기업들의 수출물량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상품의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가 2022년 2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10개 분기 연속으로 하락했다. 역대 가장 긴 기간의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승용차 판매는 올해 1분기(-8.4%), 2분기(-13.2%), 3분기(-1.4%) 등으로 크게 위축돼 있다. 가전제품의 경우, 2022년 2분기(-4.5%)부터 올해 3분기(-3.3%)까지 10개 분기에 걸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요즘 시내 길을 걷다 보면 ‘폐업’ 문구를 내붙인 점포를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음식점에는, 특히 저녁 시간에는 텅빈 자리가 많아 행하다. 마트도 소고기 등 할인 행사 코너를 빼면 이상하리만치 한산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올해 2.6%)를 낮출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향 조정한다는 건 경기가 좋지 않다고 인정한다는 방증이다. 근데 단순히 숫자 바꾸는 건 우선순위가 아닐 터. 금리 정책, 건설 부양책 등 뭐든 행함이 시급해 보인다.

/kys@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1월 4일 (음 10월 4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사생하는 사람이 많으니 겸손하게 대처. 48년생 우물거에서 송농 찾지 말고 순서대로 움직여야. 60년생 새로운 기회가 오니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72년생 봄날의 꽃보다 아름다운 자신. 84년생 아침부터 흐려지기 쉬운 날.



37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남는다. 49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부디 자중자해야 하는 하루 되길. 61년생 망설임이 때로는 좋은 결과를 준다. 73년생 꿈을 얻으려면 발통을 손질해서 놓아야 할 것. 85년생 나누는 행동이 나를 높여준다.



38년생 절이 싫으면 종이 떠나면 그만. 50년생 보기 싫은 사람도 때로는 아쉬운 법. 62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최선을 다하자. 74년생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지출도 따르게 되니 신중히. 86년생 돌아서 가는 길이 여윌.



39년생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마라. 51년생 낙수물에 바위가 돌리는 법이니 재도전이 필요하다. 63년생 그물에 잡힌 고기처럼 답답한 하루. 75년생 연인을 만나니 개나리 진달래가 만발하듯 마음도 봄. 87년생 외출 시 음주를 주의해야.



40년생 조금함이 화를 부르니 느긋하게 행동. 52년생 먼 곳에서 손님이 찾아오나 불청객이다. 64년생 떠나기도 어렵고 머물기는 더 난처한 하루. 76년생 이직하려는 만만치 않으니 더 노력. 88년생 바깥 활동을 할 때 지출관리에 힘써라.



41년생 타인의 불행을 방관하지 말자. 53년생 후배가치고 올라오니 마음이 불편하고 서글프다. 65년생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천년생물은 가는 사랑도 있다. 77년생 금전 거래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89년생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42년생 오랜 적선이 내게로 돌아온다. 54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기부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66년생 시간의 운로는 나이 들수록 단순해지는 법. 78년생 온고지신(溫故知新)은 행운을 부른다. 90년생 요행수를 바라다가 손해를 입게 된다.



43년생 일이 너무 잘 풀리니 서류정리를 꼼꼼하게. 55년생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떠나도 오늘은 거칠 것 없다. 67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도 갈 수 있다. 79년생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91년생 친구 따라 강남 가는데 좋은 일이다.



44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는 날. 56년생 병도 약도 다 내 하기 나름이니 신중하게. 68년생 말 잘하는 사람보다 행동하는 사람을 선택. 80년생 창업의 실현 시기를 잘 찾아서 발전시키도록. 92년생 새로운 인맥으로 귀한 정보를 얻는다.



45년생 믿으면 좋은 결과가 온다. 57년생 가야 할 길은 만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69년생 되는 일이 없어도 의지조차 무력해져서야. 81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93년생 한여름에 솜옷이 생각나니 건강주의.



46년생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정에 충실. 58년생 뱀파이의 거래가 순탄하게 이루어진다. 70년생 사랑에 시간과 열정을 투자할수록 오리무중이다. 82년생 평범하다고 재빨리 못하다고 할 수도 없을 듯. 94년생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내야.



47년생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바라지 마라. 59년생 마른 눈에 물이 들어오듯이 일이 잘 해결. 71년생 마음이 울적하지만 친구가 위로. 83년생 중심을 잡고 일 처리를 해야 원망을 듣지 않는다. 95년생 나름의 징크스는 누구에게나 있으니 걱정보다는.

김상회의四季

리더의 자질, 경청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K씨가 상담을 왔다. 불경기에도 나름 안정적인 매출을 해온 회사인데 아들이 대학 졸업 후 경영수업을 시킬만한 운세이며 자질이 있는지 궁금해 했다. 회사의 대소결정이 있을 때마다 미미하게나마 조언을 해주었던 터라 회사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K씨의 훌륭한 점은 직원들의 의견을 잘 경청하는 타입이다. 리더의 자질에 관하여 많은 주장이 있다. 어떤 인물이 리더가 되는냐에 따라 그 조직과 사회 또는 나라가 변형하기도 하지만 패망하기도 하고 한다. 성공과 실패의 키를 쥐고 있으니 선장이 그만큼 중요하다. 뛰어난 리더는 의중을 드러내지 않는다. 감정이 얼굴에 바로바로 드러나는 사람은 하수이다. 포커페이스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리더는 외롭다. 자신의 진솔함을 드러내는 순간 오히려 약점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라면 기분이 나빠도 웃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자신이 생각하는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할 때까지는 신념과 소신을 고수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졸업을 앞두고 모든 사관생도는 과제로 범선 운항 훈련을 하는데 훈련을 담당하는 선장은 방향기에서 손을 내리고 조용히 뒤로 물러나 생도들에게 일체의 조종을 맡긴다. 운항실습인 것이다. 일단 운항을 맡긴 이상엔 일체의 지시를 삼가며 지켜본다. 그런데 실습을 하는 생도들의 운항키의 움직임이 잘못된 것을 볼 때마다 선장은 입술을 깨물며 참는다고 한다. 그러다 보면 깨문 입술에서 피가 흘러내리기도 한다. 정 다급한 상황에서야 도움을 주겠지만 부하들의 시행착오를 참아내지 못하면 훌륭한 해군으로서의 성장은 물론 나아가 전 해군과 조직의 성장도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4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47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앱 기능 개선

지역경제 살리는 ‘혁신플랫폼’ 우뚝

앱 기능 더 쉽고 편리하게 개선
도민 위한 정책 정보 등 한눈에
가맹점 정보 제공 기능 강화도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 앱의 주요 기능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오늘부터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한다.

경기지역화폐 앱이 가진 기존 결제 기능에 도민들이 필요한 생활 정보, 가맹점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도는 이번 개편을 통해 경기지역화폐 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혁신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편은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혜택과 편의성 강화에 집중했다. 또 카드정보, 서비스영역, 정책



과 생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배치해 직관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홈 화면은 기존 사용자 카드 금액 영역을 간략하게 노출하고, 중앙 배너 신설, 콘텐츠 영역을 추가로 확대해 영역 활용도를 향상했다.

특히 ‘내 지갑’ 화면과 ‘알짜뉴스’ 화면에서는 경기도와 도내 각 시군에서 제공하는 정책수당 정보와 중요 소식을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도민들이 일상에서 정책 혜택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는 구조로 개편됐다. 그밖에 지역생활 제휴 생활편의 서비스를 소개하고, 단골가게화면을 통해 사용자와 가맹점의 편의성 향상에 기여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지역화폐 앱 개편은 도민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와 정보가 제공됨과 동시에 더 많은 혜택과 편의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개방을 통해 도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metroseoul.co.kr

광화문광장서 소상공인 위한 축제 열린다

서울시, 내일 ‘소상공인의 날’ 행사
우수 소상공인 표창, 마켓 운영도

서울시는 오는 5일 광화문광장 육조마당 일대에서 ‘함께하는 소상공인, 활기찬 내일’을 주제로 ‘2024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소상공인 제품 판매 부스, 소상공인 마켓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오후 4시 광화문광장 육조마당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 ‘올해의 우수 소상공인 유공자’에게 표창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자치구 소상공인단체에서 소상공인의 발전과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10명에게 시장 표창이 주어진다.

이밖에 ▲소원 풍등 날리기 ▲축하 공연(팝페라 그룹 라돌체) 등도 함께

진행된다. 풍등 날리기는 서울시와 소상공인, 시의회가 함께 상생·협력해 비상한다는 의미를 담아 소상공인들의 소원이 담긴 소원 풍등을 하늘로 날리는 세레모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 광화문광장의 가도공간(육조마당~세종대왕 동상)에서는 48개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해, 생활·잡화·패션·식품 등을 판매하는 ‘소상공인 마켓’이 열린다.

소상공인 판매 부스에서는 목공예품, 수제화, 참기름 등 다양한 상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체험 부스에서는 은반지 만들기, 글라스아트 선캐쳐·도어벨 만들기 등도 마련된다. 체험료는 5000원~1만원이다.

아울러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과 경영지원을 주제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상담 부스’도 운영한다.

/이현진 기자

고려대, 종양세포 표적·제거 플랫폼 개발

화학과 진경석·김준곤·스테판 교수팀
일산화질소 활용한 ‘ESCoRT’ 개발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화학과의 진경석 교수와 김준곤 교수, 스테판 린지(Stefan Ringe) 교수 공동 연구팀이 종양 세포 치료에 도움이 되는 기체 발생 전기화학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 ‘앙게반테 케미 인터내셔널 에디션(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 Impact Factor: 16.1)에 지난 달 26일 온라인 게재됐다. 논문명은 종양 세포 반응 프로파일링을 위한 전기화학 플랫폼을 통한 시공간 산화질소 변조(Spatiotemporal Nitric Oxide Modulation via Electrochemical Platform to Profile Tumor Cell Response)이다.

일산화질소(Nitric Oxide, NO)는 인체의 신경전달 물질 중 하나로, 세포막을 통과해 체내 다양한 생물학적 시스템과 상호 작용을 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암세포 내부 농도에 따라 종양의 발생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우수한 항암효과를 보이는 물질이다.

다만, 일산화질소는 효과 범위 측정이 어렵고 빠르게 분해되는 성질을 갖고 있어 종양 세포 치료 연구에 활용하기 어렵다. 이에 기존 연구는 화학적 기법을 활용해 기체를 이용해 공간적 변화를 측정했다. 그러나 해당 요소의 미세 조절이 힘들어 연구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공동 연구진은 이를 해결하고자 철 산화물 기반의 질산염 환원용 균일 나노 촉매를 연구진이 개발한 전기화학 플랫폼에 적용했다. 또한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세포 수술 시뮬레이션, 세포

생존율 실험을 진행하여 질산염의 전기화학적 환원을 통한 일산화질소의 생성이 종양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했다.

더 나아가, 연구 데이터를 통해 일산화질소의 유효 범위, 생성량(시간당 일산화질소 생성 농도), 전기화학 반응 시간과 같은 중요한 매개 변수 변화가 종양 세포 사멸에 결정적인 역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공동 연구팀은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일산화질소 농도를 조절해 종양세포를 정확히 표적으로 삼아 없앨 수 있는 전기 화학 플랫폼 ‘ESCoRT’를 제작했다. ‘ESCoRT’를 활용하면 일산화질소의 발생 플럭스, 전해 시간, 유효거리(전극과 세포 간 거리) 조절을 확인할 수 있어 종양 세포 반응 연구 및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진 기자 lhyj@

세종대-잡센터,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

외국인 유학생 취업창업페어 개최
100여 개 기업, 1500명 유학생 참가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시간미디어 잡센터(대표 양길준)와 공동으로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세종대 광개토관 컨벤션홀(B2)에서 ‘제4회 외국인 유학생 취업창업페어(I SF)’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외국인 유학생 취창업페어에는 한국경제인협회 국제경영원, ISIC 국제학생증, 리브위드, 옐로펀치, 스튜바이저(Stuvisor) 등이 협력 파트너로 참여한다.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국내 취업 유도 정책에 따라, 세종대는 잡센터와 함께 지난해부터 3회에 걸쳐 ISF를 개최했다. 주요 참여 기업으로는 조선호텔,

안다즈 서울강남호텔, 파크하얏트서울, 페어몬트 여의도 호텔 등 100여 개가 있으며, 1500명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이 참가했다.

최근에는 한화와 효성 등 대기업의 참가가 확대되고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경희대 캠퍼스타운과의 협약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창업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 이번 행사는 각 대학의 대외처, 국제처, 국제교육원 등과 협력해 한국 대학의 글로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취창업페어에 참가를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 또는 D10비자(구직활동비자) 소지자는 잡센터(JOBCENTER)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서울야외도서관 폐막 행사… “잠시만 안녕”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특별프로그램

서울시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야외도서관의 2024년 폐막 특별 프로그램 ‘잠시만 안녕, 서울야외도서관’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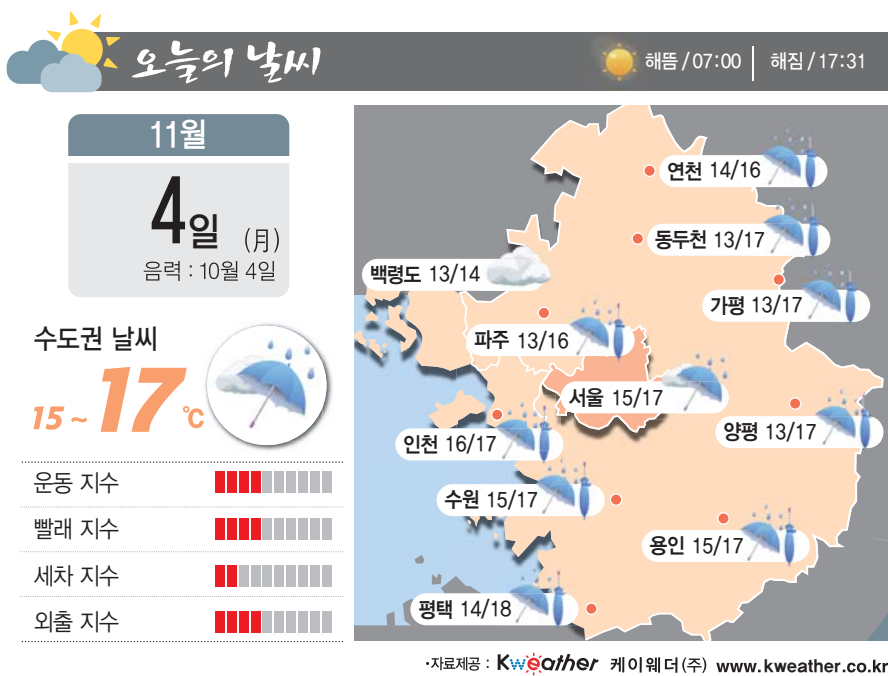
서울광장 ‘책읽는 서울광장’에서는 7일과 9일 서울광장 상설무대에서 공연 ‘잔디씨어터’가 마련된다. 7일 12시론 브랜튼 재즈그룹의 공연이, 9일 오후 5시에는 더팩트오케스트라의 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또한 7일부터 9일까지 ▲창의놀이터 확대운영 ▲책갈피만들기 ▲포토부스 등 가족 참여 프로그램과 함께 서울도서관의 ‘엄마 북돋움’

사업 관련 도서 전시도 진행된다.

광화문광장 광화문 책마당에서는 8일부터 10일까지 ‘낭만콘서트’와 ‘낭만극장’을 선보인다. 8일에는 디제이 스노우(DJ SNOW)와 앤디제이(ANND J)의 ‘디제이 공연’이 진행되고 9일과 10일에는 각각 영화 ‘로맨틱 홀리데이(2006)’와 ‘이프 온리(2004)’가 상영된다. 영화 관람을 사전 예약한 시민 중 팀블러를 지참한 300명에게는 선착순으로 따뜻한 음료가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올해 처음 정식 운영을 시작한 ‘책읽는 맑은넷가’는 10일 여성 듀오 ‘발듀’(보컬 김서영, 건반 박진희)의 공연이 마련된다.

/이현진 기자



뉴스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러시아 푸틴 측근 “우크라 나토 가입 시키면 ‘3차대전’”
▲유엔 안보리, 4일 공개회의서 북한 신행 ICBM 발사 논의

▲MS·메타·아마존·알파벳, 올해 AI 투자 288조원 전망
▲워런 버핏의 버크셔, 현금 보유 449조원...애플 지분 줄여



▲美 해리스 “한국 이미 상당한 분담금 기여...한미동맹 재확인”
▲日총선서 젊은층 자민당 이탈 뚜렷...정권불신에 소수야당 투표



신세계
재무통·영업통
CEO 교체
L1



Life

HLB그룹
제약·바이오 중심
헬스케어 확장
L2



“고립감 커진 SNS시대… 온기 담긴 손편지로 위로 건내요”



새벽을 여는 사람들

비영리단체 ‘온기’

조 현 식 대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전은 사람들 간의 소통을 편리하게 했지만, 오히려 다른 한편에선 사회와의 단절로 통한 개인의 고립을 키워온 측면도 없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온기’의 조현식 대표(사진)는 새로운 서비스 ‘온기 우편함’을 내놓았다.

온기우편함은 사회구성원 누구나 익명으로 자신의 고민을 보내면 이에 대한 답장을 손편지로 받아볼 수 있는 정서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제공하고 있다.

◆고립감에서 시작된 온기의 여정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지난 7월에 진행한 ‘국민정신 건강 지식 및 태도’ 설문 조사에 따르면, 15~69세 국민 3000명 중 73.6%가 지난 1년간 정신 건강 문제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2년 대비 9.7%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특히 심각한 스트레스를 느꼈다는 응답 비율이 36%에서 46.3%로,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도 30%에서 40.2%로 각각 1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조 대표는 이러한 현대인의 우울감과 고립감, 즉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정서적 단절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비영리단체인 온기를 설립했다.

사업 영감은 일본 유명 소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에서 찾았다. 그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에서는 과거의 인물이 고민을 보내면 미래의 인물이 답장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현실로 옮기고 싶었다”며 “나도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공감의 손길을 전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조 대표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돌담길에 첫 온기우편함을 설치했다. 그러나 온기의 초창기는 녹록지 않았다. 비영리단체의 특성상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이에 조 대표는 낮에는 IT 기획자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밤에는 온기의 활동을 이어갔다. 조 대표는 경제적 어려움보다 주변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이 더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주변에서 굳이 비영리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를 말려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다”면서도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버티며 이 길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추진했다”고 했다.

온기의 핵심은 단절된 사회관계를 손편



매년 현대인의 우울·고립감 증가세 정서적 단절 해결 위해 ‘온기’ 설립 손편지 통한 깊은 연결과 위로 목표

고민 보낼 수 있는 ‘온기우편함’ 설치 자원봉사자 ‘온기우체부’가 직접 답장 8년간 위로 담긴 편지 약 3만통 전해

전국 200곳에 온기우편함 운영계획 매뉴얼 구축, 더 많은 위로 전하고파

지로 ‘깊은 연결’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다. 조 대표는 “편지는 그 속에서 진심 어린 ‘깊은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통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편지 한 통을 작성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1시간 30분이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편지를 받을 사람을 떠올리며 정성과 진심을 담는 과정이 가장 사람 냄새가 짙게 배어난다”고 편지가 지닌 특별한 힘을 설명했다.

‘온기우편함’은 매주 모인 편지를 자원봉사자인 ‘온기우체부’들이 직접 답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각 사연에 맞춰 정성스럽게 작성된 답장은 우체국을 통해 고민을 보낸 사연자에게 전달된다. 지금까지 온기는 약 2만9000통의 손편지 답장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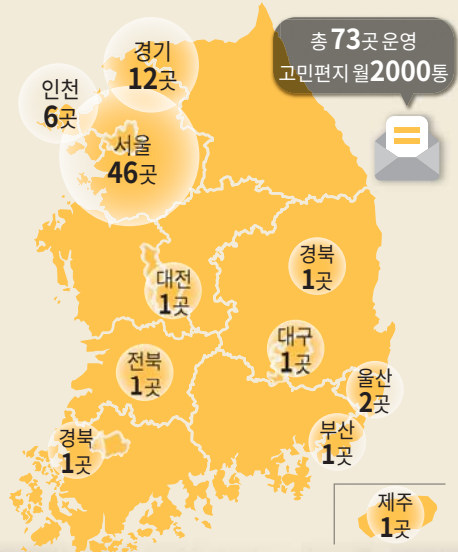
◆8년간 이어지며 매달 2000여통씩 도착 편지를 통한 깊은 연결과 위로를 목표로 한 온기의 활동은 8년째 이어지고 있다. 현재 온기우편함은 전국 73곳에 설치됐다. 우편함을 통해 매월 약 2000통의 고민편지가 도착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800명의 온기우체부가 단체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20대 대학생부터 70대 시니어까지 함께하고 있다. 조 대표는 “온기우체부로 활동한 자원봉사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아픔을 겪어본 적이 있다는 점”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은 온기우편함에 편지를 보낸 고민 사연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과 아픔에 공감하며 세상에 누군가는 소중한 당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진심이 담긴 편지를 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기우편함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반응도 뜨겁다. 고민을 보내고 정성 어린 답장을 받은 사연자들은 내일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는 것과 같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등 답장 후기를 통해 따뜻한 감동을 나누고 있다.

조 대표는 “사연자들은 힘들 때마다 이 편지를 꺼내 보겠다, 정성을 담은 말들에 눈물이 났다는 등 세상이 아직 따뜻하고 살만하다는 이야기를 남겨준다”며 “매주 이러한 후기를 접할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 비록 작은 편지 한 통이지만 누군가에

‘온기우편함’ 설치 장소



자료/사단법인 온기

는 큰 힘이 될 수 있고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걸 느낀다”고 언급했다.

온기우편함은 올해 안에 80곳까지 확장할 예정이다. 이미 영화관, 기차역, 대학교, 도서관, 카페 등 다양한 일상 공간에 설치된 온기우편함은 대학병원 암센터나 추모 공원 등 위로가 필요한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CJ CGV, 코오롱, 한화생명, 삼성생명, 서울시설공단, 한양대병원 등 40여 개의 기업과 협력해 기업 내 공간에 온기우편함을 설치하고, 임직원들이 손편지로 답장을 작성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조대표는 온기우편함을 단순한 프로젝트를 넘어 하나의 부브먼트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첫 번째 단계로 온기우편함의 운영 매뉴얼을 구축하고, 전국 200곳에 온기우편함을 운영할 계획이다. 나아가 해외로도 그 범위를 확장해 전 세계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글로벌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그의 최종 목표다.

그는 “온기우편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의 위로를 전하고 싶다”며 “생각보다 어떤 일을 꾸준히, 오랜 시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의미 있는 일 이기에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버스타비 **야구**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최민정, 쇼트트랙 2차 월드컵투어 1000m 우승
▲韓야구대표팀 쿠바 평가전 이틀연속 승리…2차 13-3 압승 /사진 뉴시스

▲2026 북중미 월드컵 포예선 명단발표…손흥민·황희찬 복귀 관심
▲옛 청계천 판자촌을 사진으로?…청계천박물관 기획전시



▲프로배구 남자부 한국전력·여자부 흥국생명…개막 4연승 질주 /사진 뉴시스
▲인기 뮤지컬 예매 순위…알라딘, 쓰릴미, 이터니티

KT&G와 함께
더 높이 도약할 주인공을 찾습니다

Let's
VALUE Up

2024년 KT&G 신입·경력사원 모집

채용 홈페이지 ktng.recruiter.co.kr

신입·경력사원 접수기간 : ~ 11월 15일까지

Trust
Origin
Professional

2045
탄소중립

Global Top-tier

미래비전
성장투자
주주환원

MSCI ESG
4년 연속 'AA'

글로벌
140여 개국 수출

Global Top-tier

KT&G

